

속기세

2022
SINCE 1970

제 58 호

속기사



목 차

4. 머리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이주성

6. 인사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 손숙자

8. 안녕! 우리말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14. 기획특집


세종시대 실록편찬 원칙 _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18. 연구논문

속기와 기록의 역사적 의미 고찰 -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55. 현장스케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스케치





58. 기자수첩

한글의 중심, 광화문 한글 가온길을 가다

65. 인터뷰

1인치 '속' 기록 : 윤병임 속기사를 만나다

81. 회원동산

속기, 내 인생의 한 수 - 한수(한수녹취속기사무소)

국회와 의회 속기사의 만남 - 임수민(국회속기사), 이옥례(강서구의회 속기사)

94. 새내기 인사

시작과 시작 - 강지혜

수고했다, 나 자신아 - 김다정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 이슬

104. 협회동정

제55회 정기총회

106. 편집후기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주성입니다.

대한속기협회는 창립 이래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속기문화의 보급과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계속하여 협회의 설립 목적인 기록보국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으로 해가 바뀔 때 즈음에는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코로나는 저희를 쉽게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히 자유를 느낄 수 없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려면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붙어지지 않듯이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 내고 찾아온 일상은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잘 이겨 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으로 더욱 뜻깊은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계속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의 발달과 진보는 기록 수단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도 같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ESG를 기록에 대입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것’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9일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기록 보존의 중요성, 속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기는 여전히 대한민국 의정사는 물론 법정 재판기록, 검찰 조사, 청각장애인들에게 자막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속기협회는 전통과 기본을 지키면서도 우리 것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를 비롯한 대한속기협회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뒤에서 항상 노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회장 이 주 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또 꽃 피는 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하반기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느라 회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외적 활동은 멈춘 것 같지만 기술은 더욱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된 일상은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을 앞당겼고 이 음성인식 기술의 출현은 속기사에게 더 높은 능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마냥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더욱 꼼꼼히 챙겨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협회는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와 한글속기 무료강습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또 한글속기의 기본이 되는 법 규정과 회의록에 대한 연구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양질의 회의록 작성 및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속기계 발간과 더불어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올해 협회는 대외적인 활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6월의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속기계 발간, 한글속기무료강습과 연구용역사업도 작년에 이어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열리는 제53차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석하는 등 올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사업에 특별한 애정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연수 프로그램을 국회사무처로부터 위탁받아 우리 협회가 주관하게 되어 지방의회 속기실무자도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 주신 협회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불안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난 총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위기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른 것이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속기인이 됩시다.

협회 집행부도 여러분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 손 속 자

안녕! 우리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부

속기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 일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발간되었고 이후 2008년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종이 사전으로 단어의 뜻을 찾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국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능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검색창에 단어만 입력하여 뜻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양한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어 검색

- 인사말이 맞을까, 인삿말이 맞을까?
- 세 글자를 말하는데 인0말... 아, 가운데 한 글자가 잘 안 들려
☞ ‘인*말’ 혹은 ‘인?말’로 검색하기

발언자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속기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수차례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도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와 *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말 찾기 자세히 보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인쇄하기 내 단어장 내가 싫은 단어들 알려주기 도움말

인?말 찾기 결과 (총 2개) 사전 내려받기 10개씩 보기

인사-말 (人事말)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전체 보기 >](#)

인상-말 (人事말) 「명사」 → 인사말. [전체 보기 >](#)

【‘인?말’ 검색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말 찾기 자세히 보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인쇄하기 내 단어장 내가 싫은 단어들 알려주기 도움말

인*말 찾기 결과 (총 6개) 사전 내려받기 10개씩 보기

인말¹ (印末) 「대명사」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異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녹인하. [전체 보기 >](#)

인말² (寅末) 「명사」 「민속」 인시(寅時)의 끝 무렵. [전체 보기 >](#)

인사-말 (人事말)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전체 보기 >](#)

인상-말 (人事말) 「명사」 → 인사말. [전체 보기 >](#)

인중지말 (人種之末) 「명사」 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태도나 행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체 보기 >](#)

인중지말 (人中之末) 「명사」 사람 가운데 형실이나 인품이 제일 못한 사람. [전체 보기 >](#)

【‘인*말’ 검색 결과】

단어 내에서 특정 위치의 글자를 모를 때 ?와 *를 사용하면 되는데 모르는 글자가 여럿인 경우 해당 위치에 ?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한 번만 사용하여도 여러 글자의 단어들을 모두 검색해 냅니다.

2) 자세히 찾기

- ‘겉보리 돈 사기가 수양딸로 며느리 삼기보다 쉽다’
속담 같기는 한데... 거뽀리? 며느리? 뭐라고 하는 거야
☞ ‘자세히 찾기’ 기능을 통해 관용구, 속담 검색하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검색창 옆에 ‘자세히 찾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자세히 찾기

조건 찾기

구분 전체 단어 구 관용구 속담

품사 전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품사 전체 품사

전문 분야 전체 전문 분야

음절 수 음절 ~ 음절

다중 매체 전체 없음 사진 삽화 동영상 애니메이션 소리

고신 날짜 ~ 전체

검색 대상 단어 자소

찾는 말

찾기

'자세히 찾기' 결과 (총 72 개)

사전 내려받기 10개씩 보기

같은 띄어쓰기만 알려주는 것이 더 크다 [속담] 말머느리가 짐안의 중요한 사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체 보기]

겉보리 돈 사기가 수양딸로 며느리 삼기보다 쉽다 [속담] 겉보리는 식량 사정이 어려운 초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말아서 돈으로 만들기 쉽다는 뜻으로, 아주 하기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체 보기]

【 자세히 찾기 결과(‘며느리’가 포함된 속담) 】

예를 들어 관용구와 속담 등을 찾고 싶을 때 전체 표현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일부분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들어간 관용구나 속담을 찾고 싶을 때 구분란에 ‘관용구’, ‘속담’을 체크, 찾는 말을 ‘표제어’로 설정하고 조건을 ‘포함’으로 한 뒤 ‘며느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며느리’가 포함된 속담이 모두 검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띄어쓰기가 헛갈리는데 이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띄어쓰기 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말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한데요. 표준국어대사전이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어문 규정을 적용하여 언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한 사전이라면 우리말샘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 직접 표제

The screenshot shows the '우리말샘' search interface. The search bar contains '며보다'.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filters for '어휘 16', '속담-관용구 2', and '뜻풀이 21'.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with columns for '전문가 감수 정보' and '참여자 제안 정보'. The results list various terms related to '며보다', such as '년치시 며보다', '속담-관용구 며보다', '마음을 며보다', '속담 며보다', '의중을 슬쩍 며보다', '실속을 며보다', '심중을 며보다', and '의중을 며보다'. A red box highlights the search results, and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띄어쓰기' option in the search filters.

【우리말샘 띄어쓰기 검색 결과】

어를 등록하거나 사전 정보를 마련할 수 있는 한편, 편집에도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인 사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신어, 방언, 전문 용어, 북한어 등도 우리말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보다’는 ‘저울로 물건을 달아 보다, 남의 속뜻을 낚지시 알아보다,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 따위를 헤아려 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떠 보다’로 띄어 쓸 경우 ‘감았던 눈을 벌려 보다’라는 의미인 구가 됩니다. 이렇듯 표기는 동일하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을 우리말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직접 올린 내용들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정확한 내용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 검색을 통해 표준화된 정확한 단어를 찾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르고 중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말 또한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전 활용법을 통해 다양한 국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고 자 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누리집(<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바른 국어 생활」

세종시대 실록편찬 원칙 _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홍보부

2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정충(鄭摠) 등이 전조(前朝 : 고려)의 역사를 편수함에 있어, 이색(李穡)·이인복(李仁復)이 저술한 《금경록(金鏡錄)》을 근거로 하여 37권을 편찬하였다. 그때 정도전이 말했다. “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 즉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 또 운경(云敬)은 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도 없었는데도 전(傳)을 지어 드러내고, 정몽주(鄭夢周)·김진양(金震陽)은 충신(忠臣)인 것을 가차 없이 깎고 몰았으며, 오직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한 것이 〈그네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왔고, 착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옛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

진산군(晉山君) 하운(河崙)이 말했다. “도전의 마음씨의 바르지 못함이 이와 같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조정에 건의하였다. “옛날 역사에 상고하여 거기에 붙여 쓸 것은 더 써 넣고, 없앨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만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다.

무술년에 임금이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校正)을 가하도록 했다. 유관

이 주자(朱子) 강목(綱目)을 모방하여 편집하려고 하자, 변계량이 말했다. “《여사(麗史: 고려사)》가 이미 이인복과 이색과 정도전의 손을 거쳤으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다.” 하고는 그 편수함에 미처서는 옛 그것을 답습하여, 태자(太子)의 태부(太傅)·소부(少傅)·첨사(僉事)를 세자(世子)의 태부·소부·첨사로 하고, 태자비(太子妃)를 세자빈(世子嬪)으로 하며, 제칙(制則)을 교로 하며, 사(赦)를 유(宥)로 하고, 주(奏)를 계(啓)로 하였고, 아직 지주(知奏)는 고치지 않았으나, 자못 당시의 사실을 잃었던 것이다.

사관(史官) 이선제(李先齊)·양봉래(梁鳳來)·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裴寅)·김장(金張) 등이 계량에게 고했다. “태자 태부(太子太傅) 등의 칭호는 당시의 관제(官制)이요, 제(制)·칙(勅)·조(詔)·사(赦)도 당시에 호칭하던 바요, 비록 명분(名分)을 바로잡는다고는 말하지만, 《춘추(春秋)》에 교제(郊禘)와 대우(大雩)를 같이 전하여 〈그 후세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였으니, 어찌 이를 고쳐서 그 실상을 인멸되게 하겠소.”

하지만 변계량이 ‘그렇지 않다’ 하여, 도리어 이 뜻으로써 윤회에게 고하여 임금에게 주달[轉達]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 같은 것은 제왕의 권한을 의탁하여 한 왕의 법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참람하게 왕(王)으로 일컬은 것은 꺾어내려서 자(子)라고 썼고, 성풍(成風)의 장사에 천자로서 과람한 부의를 했다 하여, 왕이라 이르고 천왕이라 일컫지 않았다. 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며, 빼앗고 주는 것이 성인의 심중의 재량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도 좌씨(左氏)가 전(傳)을 지음에 이르러서는, 형(荊)나라와 오(吳)나라와 어월(於越)나라를 한결같이 자기들이 호칭대로 좇아, 왕이라 쓰고 일찍이 고치

지 않았다. 《주자강목》 같은 것도 비록 춘추의 필법[書法]을 본받았다 하나, 그 주에는 참람하게 반역한 나라가 명칭을 도절(盜竊)한 것도 또한 그 사실에 인하여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는 그 기사(記事)의 규례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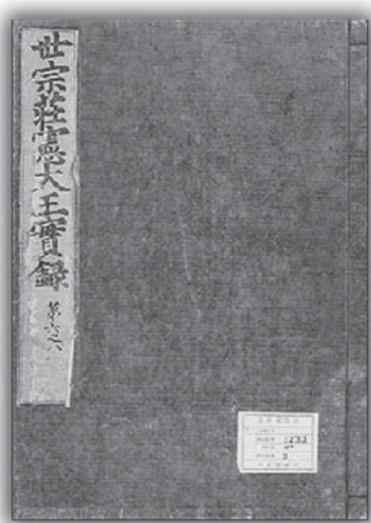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본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엄폐하려고 경솔히 후일에 와서 고쳐서 그 사실을 인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종을 고쳐서 왕으로 일컬을 것도 사실에 좇아 기록할 것이며, 묘호(廟號)·시호(諡號)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고, 범례(凡例)에 고친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하라.”

[今之秉筆者, 既不能窺聖人筆削之旨, 則但當據事直書, 褒貶自見, 足以傳信於後, 不必爲前代之君欲掩其失, 輕有追改, 以沒其實也. 其改宗稱王, 可從實錄, 廟號諡號, 不沒其實. 凡例所改, 以此爲準]

변계량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정도전이 참람히 비의(比擬)한 것을 고쳤사오나, 정도전 때에 와서 비로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과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종으로 일컬은 것을 왕으로 썼고, 또 주자(朱子)가 강목을 지을 때에, 측천황후(則天皇后)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서 당(唐) 2년, 3년으로 썼기에, 신도 또한 위로 주자의 필법을 본받고, 아래로 도전의 뜻을 본받아, 무릇 참람하게 비의한 일은, 〈전에〉 고치지 않은 것도 또한 있는 데 따라 고쳤습니다. 또 이미 고친 바 있는 참람된 일을 다시 쓴다면, 지금 사관들이 반드시

〈이를〉 또 본받아 쓸 것이니, 그 사실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에는 내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하겠다. 주자의 강목은 이 책과는 다르다. 주자 강목은 명분을 바로잡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만대의 아래에서도 일성(①星)과 같이 환히 밝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대강(大綱)과 세목(細目)의 구분이 없는데,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림1〉 세종실록

후세에 무엇으로 연유하여 그 사실을 보고 알겠는가.” 경이 또 말하기를, “익재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 비록 굳이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다만 옛사람이 이르기를, ‘앞사람의 과실을 뒷사람이 쉽게 안다’고 하였거니와, 경이 말한 것같이 지금의 사관이 그것을 보고서 쓸 것이라는 것은, 즉 사실 그대로 쓴다는 말이니, 사실을 사관이 그대로 쓴다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古人云：前人之失，後人易知。卿所謂今之史官見而書之，直書其事之語，史官書之何害?]

하고, 드디어 유관과 윤회에게 명하여, 도전이 고친 것까지도 아울러 모두 구문(舊文)을 따르도록 하였다. [...]

- 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속기와 기록의 역사적 의미 고찰

박현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I. 연구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속기(速記)의 현재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속기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종적 변천).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체제’를 정비한 세종시대 사람들의 ‘기록학’에 대한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 속기 역사와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횡적 비교).

속기의 종적 변천과 횡적 비교를 통해 현재 좌표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 속기계(速記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속기사들이 각자 하는 일의 역사적인 뿌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무릇 정치를 잘 하려면 반드시 그 전 시대의 다스려진 것과 어지럽힌 것[治亂·치란]의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요,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과거의 기록을 상고(詳考)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실록 23년 6월 28일). 세종이 보기에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곧 지금 서 있는 좌표를 모르는 것과 같았고, 또한 장차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뜻했다.

우리나라는 속기법 창안 연도에 있어서 서양은 물론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늦다. 이는 20세기 전반부를 일제 식민지하에서 보내야 했고, 해방 후

에도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시절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 방법에 의해 기록·보존해 온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이경식 2011).

서양의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완전한 속기법’이 시작되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그보다 50년 정도 뒤떨어진 19세기 말부터 도입되었다(유순태 외 1998, 33-36쪽). 1837년 아이작 피트맨의 <표음속기술>을 그 시작으로 삼을 경우 서양보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110여 년 늦게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회의록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미국·호주에 견줄 만큼 선진화되어 있다(박현모 외 2021, 11-27쪽). 이는 건국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 의회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 ‘후발 이익’ 측면과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신라의 경우 진흥왕 6년[545년]의 기록) 조선 건국기 들어 체계적으로 정비된 역사 기록의 전통에서 그 저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國可滅而史不可滅·국가멸이사불가멸]”고 생각했다(세종실록 6년 8월 12일). 그들은 왕과 재상도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까지도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읽히고 회자(膾炙)될 것이라고 믿고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는[據事直書·거사직서]” 전통을 남겼다. 유명한 태종의 에피소드, 즉 ‘말에서 떨어진 사실을 적지 마라’고 지시한 것까지 기록하는 사관의 자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 전하려는 사명의식을 보여 준다.

그동안 우리나라 속기는 1) 모색기 2) 정비기 3) 확장기 4) 정보화기라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2002년 회의록시스템이 구축되고 ‘회의록’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고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데이터기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70년 동안 한국 의회의 역사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 국회 회의록은 다른 역사기록물-가령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합계
4	9	31	7	51

〈표〉 속기 관련 논저 현황(2021년 8월 현재)

이처럼 오랜 기록의 전통을 갖고 있고 충실하게 기록된 국회회의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관련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51편). 2021년 8월 현재까지 불과 9편의 석사논문과 31편의 연구논문 그리고 7편의 보고서가 있을 따름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콘텐츠 차원으로 볼 때 속기의 뿌리에 해당하는 조선왕조실록(이하 ‘조선왕조실록’)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의정사를 기록하는 속기사를 조선왕조 사초(史草)를 작성했던 사관(史官)에 비유하고 있지만(유순태 외 1998, 40쪽) 정작 사초를 기록했던 사관은 어떤 제도적 장치 아래서 일했고 그들의 사명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음으로 전문학술지의 부재이다. 대한속기협회에서 펴내던 〈속기연구논문집〉, 〈속기관련 연구논총〉, 〈속기관련 자료·논문집〉은 2002년 이후로 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콘텐츠의 광맥을 찾지 못하고, 연구가 실릴 학술지가 없다 보니 속기 분야의 심층연구나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속기학술 세미나, 즉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

기학술회의¹⁾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발간할 경우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학 등 인접 분야와의 교류가 부족하다. 속기와 기록관리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무리 속기를 충실히 해도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기록관리를 중시했던 중세 교회 사람들이 남긴 속담, 즉 ‘문서 없는 수도원은 마치 무기 없는 무기고와 같다’라는 비유에서 보듯이 속기와 기록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한국 속기계가 한 단계 도약할 디딤돌로서 속기와 기록학의 역사적인 뿌리와 정신을 재조명할 것이다. 제헌국회 이후 한국 속기 역사나 외국의 사례나 현재 상황도 살필 것이나 그 부분은 보조적인 것에 머물 것이다. 그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텍스트를 속기와 기록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속기의 역사적 뿌리와 함께 그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속기와 기록관리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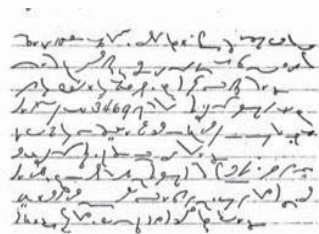
속기(速記, stenography), 즉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특정의 부호문자인 속기문자로 정확하게 빨리 필기하여 이것을 일반 문자로 번문(翻文)하는 활동”(유순태 외 1998, 28쪽)의 역사는 고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아테네, 델포이 등에서 발견되는 기원전에 사용한 특수부호나 기원전 63년 10월 21일 로마 원로원의 정치가 키케로가 행한 ‘카타리나 탄핵연설’을 그의 고용인 타이로(M.T Tiro)에게 속기방식을 고안시켜 기록하게 한 것을 그 기원

1)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자료집만 발간하고 있다.

으로 삼는다(손숙자 외 1997). 머리글자와 끝의 글자를 적당히 약기(略記)해서 기록하는 타이로의 방법은 속기법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타이로의 이 약기법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연설을 기록하는 데도 사용할 정도로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인, 그리고 황제까지도 타이로의 약기법을 배웠다고 한다(유순태 외 1998, 33쪽).

체계를 갖춘 근대적 속기, “속기다운 속기법”은 1558년에 영국인 브라이트(Timothy Bright)와 1602년 윌리스(John Willis), 그리고 1837년 피트맨(Isaac Pitman)의 노력을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특히 피트맨은 종래의 기음적(記音的) 선상(線上) 필기법에서 벗어나 <표음(表音) 속기법>(Stenographic Sound)을 저술했다. 속기학원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현재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기법 중 대부분이 피트맨식을 근거로 고안되었다. 이 점에서 타이로는 ‘속기계의 원조(元祖)’, 피트맨은 ‘서양 속기계의 중흥자’라고 일컬어진다(유순태 외 1998, 35쪽).

피트맨식과 함께 1888년에 그레그(J.R Gregg)에 의해 창안된 그레그식 속기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기법이다.



〈그림1〉 피트맨(Pitman) 속기(* 출처 : 구글 이미지)

〈그림2〉 그레그(Gregg)식 속기법(* 출처 : 구글 이미지)

동양의 경우 1882년에 일본인 다쿠사리[田鎖綱紀·전쇄강기]가 속기방식을 창안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다쿠사리는 자신이 창안한 속기법으로 1882

년 10월 28일 제1회 속기강습회를 개최했다. 그의 속기법은 1890년 일본 제국의 회 개원과 동시에 귀족원과 중의원 의회에서 활용되었다. 중국에서는 1895년 채석용(蔡錫勇)이 창안한 전음쾌자(傳音快子) 속기법이 중국 정부에서 채택되었다. 이 속기법은 1910년 중국의 <정치관보(政治官報)>에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개량·보급되고 있다(유순태 외 1998, 35-36쪽).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 박여일 씨가 하와이에서 <신한민보(新韓民報)>에 ‘조선속기법’을 창안 발표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박여일 씨는 그 후 다수의 속기방식을 창안 발표했으나 그의 속기법은 일제 치하에서 실용화되지 못했다. 속기법이 직접 실무에 활용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다. 해방과 더불어 일파식·한국식·서울식·고려식·동방식·세종식 등 많은 속기방식이 앞다투어 창안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속기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어 후진이 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속기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비록 대다수가 일본어 속기를 하던 사람이었으나 6명의 우리나라 속기사가 1946년 12월 11일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예비회의부터 속기책을 작성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속기의 예이다.

여기서 보듯이 속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속기 인재의 양성이다. 아무리 의회 정치가 활성화되어서 속기가 필요해도 그를 뒷받침할 인재가 없으면 속기의 발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946년 6월에 결성된 ‘조선어속기학회’를 비롯해 ‘일파식 속기사 양성소’(1946.9 개설), 중앙속기학원(1947.7 설립) 등 초창기 속기학원들의 노력은 의미 있다. 속기 인재 양성과 관련해 1951년 12월 개설한 대한속기고등학교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속기고등학교는 1961년 5·16혁명으로 폐쇄될 때까지 10회에 걸쳐 3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우리나라 속기 인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우수한 속기사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었다.

속기 인재 양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역시 ‘국회속기사양성소’(이하 ‘양성소’)의 설립이다. 이 양성소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속기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968년 2월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이 통과되었고 국회의사무처 내에 국비로 운영하는 속기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양성소는 이후 30여 년간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국회의사무처 속기과(지금의 의정기록과)에서 운영하다가 1994년 국회의정연수원이 출범하면서 그 이듬해인 1995학년도부터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과 교육 과정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1997년에는 속기록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기존의 수필속기에서 전산속기로 교육방식이 일대 전환되었다. 일명 빠른손속기워드(경영소프트 개발)라는 컴퓨터속기를 정식 교육방식으로 채택하였는데, 당시 속기학 강의를 위해 홍기표·손숙자 강사 등이 위촉되었다. 컴퓨터속기교육은 1년간 진행된 후 IMF가 발발한 1998년에는 학생 모집을 중단하여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자동 폐교되었다(유순태 외 1998, 92-94쪽).

기록관리의 역사는 속기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점토판에서 발견되는 아시리아 왕국의 기록 등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기록관리의 제도가 있었는데,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통치의 중요기록을 아레오파고(Areopago)에 보관했다. 기록보존소는 공공건물 안에 위치했으며, 기록보존소의 담당자는 표면에 석회 등을 바른 나무판 장부나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내용을 관리했다고 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36-37쪽).



〈그림3〉 아테네 아레오파고(Areopago)(* 출처 : 구글 이미지)

기록관리의 전통은 고대 로마시대에 들어 구체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타이로(M.T Tiro)의 속기, 즉 BC 63년 로마의 키케로가 ‘카타리나 탄핵연설’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게 한 것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산출되었는데, 그 중 공공기관 기록물들을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로마시대에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기록물의 안전을 보장하고(보존) 원본성을 확보하려는(신뢰)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전자, 즉 보존 기능은 주로 황제의 기록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 중시되었다. 그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rpus Iuris Civilis)에 규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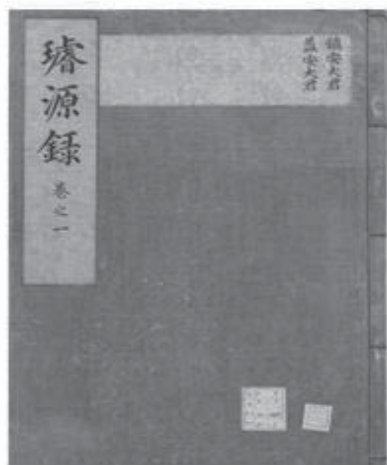
여기서 보듯이 로마에서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황제 권위를 높이려는 필요와 맞물려 있었다. ‘황제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성한 장소, 특히 성구실(聖具室, Sagrestia)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세종이 선원전(璿源殿)이라는 건물을 지은 취지와 비슷하다. 즉 1438년(세종 20)에 세종은 경복궁 안에 선원전을 지어 역

대 왕과 왕비들의 초상화 및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을 봉안(奉安)하게 했다(세종실록 20년 5월 19일). 이는 ‘선왕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전국에 국가기록보관소인 사고(史庫)에 초상화와 <선원록>을 보관·관리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왕이나 황제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하기 위해 시작한 기록관리 제도는 점차 기록물보존소에 공공성을 갖게 했다. 또한

그곳에 기록된 기록을 ‘신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록물보존소의 기록은 원본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보존소 기록물에 대한 신뢰는 문서 이관 행위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관리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문서에 부여된 공신력은 특히 공공기록물인 경우, 필요한 서식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대상 지역이나 인물에게 발송되었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문서가 권위 있는 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고, 이관 행위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공신력이 획득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적어도 유럽의 경우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김정하 2013, 60-61쪽).

유럽에서 기록관리 체계가 잘 발전된 나라는 근대 기록관리를 주도한 프랑스와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이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1794년 6월 세계 최초의 근대적 기록관리법인 ‘메시도르 7일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제정을 통해서 프랑스는 혁명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과 혁명기 의회 기록물을 보호하고 시민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 중심의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그림4〉 조선왕실 족보 ‘선원록(璿源錄)’
(* 출처 : 구글 이미지)

하였다.

1945년 행정조직으로 기록관리부(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를 신설했는데 여기에서는 기록관리 정책, 기록물 평가와 열람서비스, 국가 기념행사를 담당한다. 이 중에서 기록물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통제, 전자기록관리 관련 업무, 중앙행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등을 담당하며, 기록물 평가와 열람 서비스 영역은 디지털기록물의 접근과 유통, 기록관리 관련 학술 연구, 장기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 센터를 담당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46쪽).

영국의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기관은 국립보존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 TNA)이다. TNA는 법무장관 산하 기관으로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보관한다. TNA는 런던 남서쪽 리치몬드의 런던 보로우에 있는데 1977년에 문을 열었다. TNA는 영국정부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출판 업무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기관이자, 문화적·학술적 문화유산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47-48쪽).



<그림5>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 TNA) (* 출처 : 구글 이미지)

동아시아의 경우 기록관리의 역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인접 국가이면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형태로 기록관리 전통이 유지되었다. 중국의 기록문화 역사는 BC 8세기에서 BC 3세기에 이르는 춘추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나라(BC.221~BC.207)에 이르러 국가에서는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법률과 세금 관련 문서를 중요 기록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대적 기록관리가 시작된 것은 ‘중국인민공화국당안법’(中國人民共和國檔案法, 이하 ‘당안법’)이 제정된 1986년부터다(1996년 개정)(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0쪽).²⁾

일본의 경우 기록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국립공문서관의 역사가 중요하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메이지시대(1868-1912) 이후 여러 기관에 흩어져 보관하던 문서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1971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 기록관리를 담당하던 기관은 태정관(太政官) 내부 도서관(1873년 설치), 내각문고(1885년 설치),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1949년 설치) 등이었다. 이 중에서 내각문고의 자료에는 에도막부의 기록 등 중요한 공문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궁내청 서릉부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의학서적인 <향약구급방>(고려 고종 때 편찬)과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의방유취> 등이, 국립공문서관에는 <역대세년가>, <세의득효방> 등이 소장되어 있다(박현모 2017, 89쪽).

2) 중국에서는 기록학을 당안학(案學)이라 부른다. 당안이란 서류를 보관하는 시설, 즉 선반이나 사각형의 긴 탁자를 뜻하는데, 공공기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공공기록물을 ‘역사당안’으로, 그 이후의 것을 ‘현행당안’으로 부른다. 인민대학에서는 1954년 중국 최초로 4년제 ‘역사당안학과’를 개설하였고, 1955년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당안학원’을 설치함으로써 학부과정을 비롯해 석·박사과정까지 갖추고 있다(등사오싱 외 2003, 8-9쪽).



〈그림6〉 일본 궁내청 서릉부(書陵部)(* 출처: 구글 이미지)

2001년 국립공문서관 산하 조직으로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에는 국립공문서관 및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등 국가기관 보관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3쪽).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서기 600년(고구려 영양왕 11년)에 이문진이 〈신집(新集)〉 5권을 만든 것을 비롯해 백제와 신라에서도 국사(國史)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역시 987년(성종 6년) 중앙과 지방의 공문서 서식과 교류에 관한 규정인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이 〈고려사〉에 남아 있어서 기록물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기록관리 제도는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공문서 관리 사항이 그것을 보여 준다.

〈경국대전〉은 공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경국대전〉 ‘장문서(藏文書) 조(條)’에서는 공문서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중앙 및 지방 관아의 문서는 각 관청이 직접 유형별로 나누어 종합한 다음 부전지(附箋紙)를 달아서 각기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철된 문서는 분실되거나 흩어지기가 쉬워서 책자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각

관아의 중요한 문서는 그 원문을 등록한 후 관련 관아에 배포하여 행정상 참고자료로서 쉽게 이용하고, 사고로 문서가 인멸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문서와 승문원의 문서는 찬집 인출하여 해당 관아와 의정부 및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김혁 2002, 100-105쪽).³⁾



〈그림7〉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출처: 구글 이미지)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근대적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는 우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실록의 전통'이 중단되었고, 6·25 한국전쟁 등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공문서와 고문서가 훼손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록관리를 시작했지만(정부처무규정 1949.7 등) 아직까지는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처무규정'(1911.7)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형편이었다.

3) 조선시대 문서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공문서는 국왕문서, 관부문서, 외교문서, 왕실문서 등이 있고, 사문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문서의 종류로는 문서류, 일기류, 의궤류, 등록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일기류는 각 관공서에서 일별로 업무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승정원일기>, <규장각일기>, <내각일력(內閣日曆)> 등이 대표적이다. 의궤류는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 경과, 소요비용, 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기록해 놓은 중요 문서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59쪽).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한국 기록관리 체계는 비로소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 미국식 사무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정부는 처음으로 공문서의 종류를 조사하여 각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표준화했고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했다(1961.9).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제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국가기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점점 업무가 방대해져서 2004년부터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대통령령 제18392호) 국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한국 기록관리학회 2018, 62-68쪽).

Ⅲ. 조선시대 속기와 기록관리의 정신

삼성그룹의 고(故) 이건희 회장은 “50년 된 회사와 5년 된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과거 데이터의 차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때그때의 경영자와 공장장, 몇몇 기획하는 사람의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데이터와 역사,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에 따르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아 둔 “생데이터”이다. 기록을 남겨야 뒷사람들이 먼저 사람들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텐데 그 기록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의미하거나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리가 안 되고 세련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 생데이터, 생정보를 남겨” 놓으라고 강조했다(이건희 1993, 74-77쪽). 얼핏 보기에 기록이나 역사에 무관심할 것 같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역사기록을 데이터로 간주하고 매우 중시했

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볼 때 세종시대 사람들이 기록과 관리에 대해 보인 태도는 실로 놀랍다. 세종은 정도전 등이 편찬한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사필(史筆)을 잡는 자가 이에 성인이 취하고 버리신 취지를 엿보지 못할 바엔[既不能窺·기불능규 聖人筆削之旨·성인필삭지지] 다만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라[據事直書·거사직서]”(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이 말 바로 앞에서 세종은 성인, 즉 공자가 <춘추>를 지어서 (다른 역사가들의) 참람한 호칭을 깎아내린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자이니 그렇게 높이고 낮추는 안목이 있었지만 그런 안목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옳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정도전 등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임의대로 호칭을 고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세종에 따르면 현재를 기록하는 사관이 할 일은 ‘오로지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족히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褒貶自見 足以傳信於後·포평자현 족이전신어후]”이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전신어후(傳信於後)’이다. 전신어후란 후대에 신뢰를 전달한다, 또는 전달하여 후대의 신빙(信憑)을 얻는다는 뜻이다. 믿고 읽을 수 있는 역사를 남기려면 기록자가 견해 개입을 억제하고 온전히 사실을 담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세종실록 6년 8월 12일). 왕과 재상도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까지도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회자(膾炙)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바르게[直] 기록하는 일, 즉 거짓되거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올바른 기록] 장황하게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게[정확한 기록] 기록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후대인들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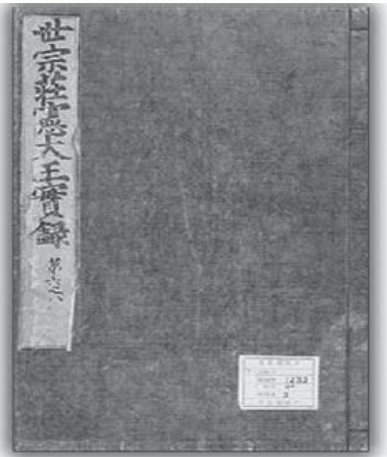
역사 기록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록을 정성들여 남긴다 해도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 역사 서술의 자세, 즉 “지난 일들을 서술할 때, 후대인들을 깊이 의식해야 한다[述往事·술왕사 思來者·사래자]”는 태도와 상통한다.(<한서(漢書)> 권62, 사마천전).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 사마천은 <사기(史記)>를 편찬하면서 ‘밝은 세상을 잘 계승시키는 일[能紹明世·능소명세]’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다.

‘태사공 자서(太史公自序)’에서 그는 공자나 주공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꿈꾸고 이루었던 성대한 시대를 기록하고 전해서 “난세를 다스려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撥亂世反之正·발란세반지정]”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큰 책무라고 말했다.

나라 다스리는 자는 <춘추>, 즉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되는데, (역사를 모르면) 앞에 참조하는 자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뒤에 역적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신하된 자도 <춘추>를 알아야 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옳은 방법을 모르고[守經事而不知其宜·수경사이불지기의] 사태의 변화를 만났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줄 모르게 된다[遭變事而不知其權·조변사이불지기권](사마천, <사기> 태사공자서).

한마디로 올바른 ‘판단 기준’도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풀어 갈 ‘해법’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사마천의 믿음이었다. 세종은 그런 맥락에서 “무릇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 시대가 남긴 치란(治亂)의 자취를 살펴봐야 하고, 그



<그림8> 세종실록

자취를 보려 하면 오직 역사책을 상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속 리더십 사례를 편찬하게 했다. 세종은 또한 알려진 것처럼 왕과 재상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실록을 볼 수 없는 좋은 전통을 세웠다. 후대인들이 그 역사 기록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록을 정성 들여 남긴다 해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고 읽을 수 있는 역사 기록을 위해 세종이 세운 원칙이 있다. 그것은 국왕이라도 자기 재위 기간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전 왕들의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전통이다.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 실록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그중에서도 제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한 태종의 역할을 몹시 알고 싶어했다. 권력 쟁탈 과정에서 자기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 보낸 골육상잔(骨肉相殘)에 대해 사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1431년 3월, <태종실록>의 편찬을 마무리할 즈음, 세종은 “전대(前代)의 제왕들이 선왕(先王)의 실록을 친히 보지 않은 자가 없는 것 같은데 (….) 내가 한번 <태종실록>을 보려 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우의정 맹사성 등은 “전하께서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 또한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실록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세종은 “그렇겠다.” 하고 물러섰다(세종실록 13년 3월 20일).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정말 궁금했던 듯하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438년에 세종은 다시 “자손으로서 조상의 기록을 알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감계(鑑戒 : 살펴서 조심하는 일)를 삼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황희 등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세종도 손을 들고 말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통이 되어 후대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전거가 되었다(세종실록 20년 3월 2일).

〈세종실록〉은 세종이 승하한 지 2년 뒤인 문종 2년(1452년)에 편찬을 시작해 단종 2년(1454년)에 완성되었다(2년 1개월 소요). 〈세종실록〉은 조선 후기의 〈정조실록〉과 함께 실록 편찬자[史官·사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런 평가와 가장 대조되는 것은 〈단종실록〉이나 〈명종실록〉이다. 예를 들어 단종실록 1년 10월 10일 자 기사를 보면 사관은 왕을 “노산군”이라고 부르고, 수양대군을 “세조”라고 칭하고 있다. 이것은 세종의 직서법을 어긴 것이다. 또 〈명종실록〉 10년 11월 20일 자 기사를 보면 남명 조식을 변호하는 정종영의 말을 소개하면서 사관이 실록 기사 중간중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삽입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되는 인물은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무계가 있으며,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유일의 선비”라고 두호하는 반면, 노선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성품이 간사하고 표독하며, 뱃속에는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 기록한 〈명종실록〉 속 사평은 오늘날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는 그 대목을 읽어 볼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세종의 ‘실록 기록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면 좋은 역사 기록은 어떤 것인가?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유명한 태종의 에피소드, 즉 ‘말에서 떨어진 사실을 적지 마라’고 지시한 것까지 기록하는 사관의 자세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세종이 왕 앞에 상시 대기하는 사관과 승정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집현전 학사까지도 어전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 것 역시 사실을 상세하게 적어서 후대가 감계(鑑戒) 삼기 좋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 둘째는 역사 기록에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종이 〈태종실록〉을 보려 했던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관계보다는

사평(史評)이었을 수 있다. 제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된 태종의 역할에 대해서 사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史草)에는 사관이 어전회의에서 기록한 것을 정서해서 제출한 ‘춘추관 사초’와 기록한 원본을 집으로 가져간 ‘가장(家藏) 사초’가 있다. 이 중에서 후자, 가장 사초에는 기록한 내용에 대한 사관의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다. 어전회의를 기록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적을 수도 있다(오향녕 2018, 316-317쪽; 41-43쪽).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 때부터 사초 관련해 정해진 원칙이 있다. 그것은 사초를 국가에서 거두는 시기인데, 처음에 왕은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 사관이 죽으면 바로 사초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관들은 태조 때 전례를 들어 국왕이 죽은 다음에 사초를 수납하기로 건의해서 윤택받았다(세종실록 6년 12월 1일). 또 다른 원칙은 사초의 원본성을 훼손한 자나 사초 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종 때 성립된 사초관리[史草禁防·사초금방] 6조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의 흔적을 없애려고 사초첩 전부[卷綜·권종]를 훔친 자는 왕명[制書·제서]을 도둑질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베[斬全盜卷綜者 以盜制書律論斬·참전도권종자 이도제서울논참], ②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 역시 ‘왕명을 찢어버린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베[截取磨擦墨抹者 以棄毀制書律斬·절취마찰묵말자 이기훼제서울참], ③ 동료 관원으로서 (사초를 훔치거나 지운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울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함(즉, 목 졸라 죽이거나 유배형에 처함)[知而不告者 依律減一等·지이불고자 의울감일등], ④ 사초 내용을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리[近侍官·근시관]가 중요한 기밀을 남에게 누설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베[史草事情漏洩外人者 以近侍

官員漏洩機密重事於人律斬· 사초사정누설외인자 이근서관원누설기밀중사어인을 참], ⑤ 위 사항으로 죄 지은 자는 비록 사면 받더라도 정범(正犯)은 직첩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 만약 그가 죽었으면 직첩을 추탈(追奪)함[正犯人奪告身永不敘用· 정범인탈고신 영불서용], [犯者物故 亦行追奪· 범자물고 역행추탈], ⑥ (누설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만 거둠[知而不告及漏洩者 只收職牒· 지이불고급누설자 지수직첩](세종실록 31년 3월 2일).

여기서 보듯이 사초는 국서(國書),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었다. 사초 전부를 훔친 자는 물론이고 몇 글자만 도려내거나 지운 자도 참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다. 사초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자 역시 참형 대상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사초를 지우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도 중형에 처해졌다. 역모죄에 준하는 형벌이 사초 관련 범죄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이처럼 사초 훼손한 자에 엄형을 내리도록 한 것은 그 직전에 핵심 인재들의 참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초관리 6조목 제정 열흘 전의 실록 기사를 보면 권제·안지·남수문 등이 <고려사>를 고치거나 삭제한 죄로 처벌받았다. 이 중에서 권제(1387 ~ 1445)는 자기 아버지 권근의 일을 왜곡(歪曲)되게 쓰거나 삭제하는 등 사초를 심하게 왜곡한 사실이 탄로나서 직첩을 박탈하거나 시호(諡號)를 추탈(追奪) 당했다(세종실록 31년 2월 22일).

사초를 훼손하거나 누설한 죄는 세종 사후에 더욱 엄하게 다스려졌다. 예컨대 예종 때인 1469년 사관 민수(閔粹)는 <세조실록> 편찬과정에서 춘추관 보관 사초를 사관 강치성에게 부탁해 몰래 꺼냈다. 그 연유를 묻는 왕에게 민수는 자신이 나쁘게 쓴 양성지가 춘추관의 고위직인 지사(知事 : 종2품)에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고쳤다[畏而改之· 외이개지]”고 실토했다(예종실록 1년 4월 24일). 결국 민수는 장(杖) 100대를 맞고 제주 관노가 되었고, 역시 사초를 고친 원숙강과 강

치성은 사형을 당했다.⁴⁾

흥미로운 것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편년체 역사기록에서는 사평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사(正史)인 <고려사>에는 사평이 있으나 분실된 <고려실록>이라는 편년체 역사에는 사평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를 쓴 오항녕 교수에 따르면 사관의 평(commentary)은 성리학적 인간의 역사편찬 방법이다. 성리학 고전을 공부한 문관 출신 사관들은 공자의 포폄(褒貶 : 옳고 그름이 나 잘하고 못했는지를 판단하여 평가함)을 본받고, “강(綱)에서 명분을 바르게 하고 목(目)에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는[正名分 詳事實·정명분 상사실]”(세종실록 5년 12월 29일) 주희의 역사편찬 방법을 계승했다. 그들이 포폄과 정명의 원칙을 본받아 군신의 언행과 정책에 대해 자기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평이다. 고려 중기 때 편찬된 <삼국사기>(1145년)에는 사평이 없다. 하지만 세종 때 편찬된 책 <치평요람>(1445년 완성)이나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1435년 완성), 그리고 문종 초년의 <고려사절요>(1452년 완성) 등 역사서에는 집현전 학사를 포함한 사관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 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태도는 ‘경사(經史)의 학습법’, 즉 역사책을 읽거나 기록을 남길 때 경전에서 배운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논평을 남기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오항녕 교수 자문, 2021년 7월 6일).⁵⁾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평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록 기사에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전후 맥락을 알게 하는 내용보충형이다. 성종 때 한명회(성종실록 12년 6월 26일), 연산군 때 홍귀달(연산군일기 10년 6월 16일), 인조

4) 민수가 사형을 면한 것은 외아들이라는 것을 예종이 배려했기 때문이다. ‘민수 옥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오항녕 2018, 43-49쪽 참조.

5) 현재 국회나 지자체의 속기사는 기록(dictation)만 할 뿐, 기록에 대한 자기 의견(commentary)을 덧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때 김류와 이귀 사례(인조실록 7년 7월 24일) 등이 그 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이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는지를 기록하여 해당 기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왕이나 신하들 언행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인물 포폄형이다. 성종의 잘못된 인사를 비판한 이파(李坡)(성종실록 12년 5월 26일), 성종 때 성리학자 이심원 평가(성종실록 8년 12월 2일), 명종 때 내시 최한형 비판(명종실록 14년 12월 29일), 선조 때 청백리 이원익 칭찬(선조실록 34년 5월 16일), 영조 때 화가 진재해 사례(영조실록 1년 4월 21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원익이나 진재해의 경우 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셋째, 과거제도, 사면제도, 의적 등에 대한 사관의 생각을 기록하는 제도나 법 포폄이다. 중종 때의 잘못된 사면제도(중종실록 3년 1월 30일), 명종 때 과거제도(명종실록 15년 4월 20일)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명종 때 도둑 임격정을 소탕하겠다고 나서서 조정을 비판하는 사평도 인상적이다(명종실록 16년 10월 6일). 그런가 하면 영조 대 인물인 민진원에 대한 사평을 다시 평가하는 것(meta-commentary)도 있다(영조실록 12년 11월 28일).

우리 역사에서 사관(史官)제도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사(國史)란 군신의 잘못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그에 대한 포폄을 보이는 것”이라는 이찬 이사부의 말(〈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6년)과 “백제가 개국한 이래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근초고왕 30년) 와서 박사 고흥이라는 인재를 얻고서야 ‘서기(書記)’가 있었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2 등이 그 근거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의 존재가 곧 실록 편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록은 대화나 사실의 기록(dictation)을 비밀을 유지하며 간직하다가 국왕 사망 등 일정 시기에 (기록자와 다른) 책임자들의 편찬을 거쳐 관청(史館·사관)에 보관되어야

그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공문서들이 권위 있는 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어야 원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실록 역시 사관(史館)이라는 보존소에 안전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실록 전통은 고려 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기관에서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안전하게(누설 및 분실 방지) 보관하는 제도가 고려 초기부터 생겼기 때문이다. “춘추관은 당대 정치를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국초에는 사관이라고 불렀다”는 <고려사>의 기록(백관, 춘추관)이 그 근거다. 또한 경기도 여주 고달사에 있는 광종26년(975년)에 제작된 원종대사 혜진(慧眞)의 탑비를 지은 김정언의 직명이 “감수국사(監修國史)”로 기록된 것도 고려 초에 사관(史館) 제도가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기거주(起居注)라 불린 8명의 정5품 관리는 국왕에 대한 간쟁과 왕 주변의 일을 기록하였고, 임기가 되면 그동안의 사초를 정리해 1부는 사관에 납입하고[時政記·시정기] 다른 1부는 자기 집에 보관했다[家藏史草·가장사초].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⁶⁾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정기와 사관을 역임한 사람 집에 있는 가장 사초 등을 수집했다. 실제로 1389년(공양왕 1년) 3월 왕은 사관으로 하여금 “각각 사초(史草) 2부를 기록하게 하되, 임기가 다 되어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에는 1부는 사관(史館)에 납부하고[一納于館·일납우관] (나머지) 1부는 집에 보관하게 하여[一藏于家·일장우가] 뒷날 참고에 대비하게 하십시오[以備後考·이비후고]”라는 사관 최견(崔鑣)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고려사> 열전 권50, 공양왕 원년(1389) 3월). 편찬된 실록은 춘추관의 경사고(京史庫) 외에 해인사의 외사고(外史庫)에 보존했으며 영구전승을 위해 3년마다

6) 고려실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국왕 사후에 편찬되지는 않았다. 태조.혜종.경종.광종.경종.성종.목종의 7대에 걸친 실록을 1013년 수찬관(修撰官) 황주량 등이 국왕 현종의 명을 받아 <칠대실록> 편찬을 시작하였고 1034년(덕종3) 완성했다(<칠대사蹟記(七代事蹟記)>라고도 불림). 그런가 하면 <현종실록> <덕종실록> <예종실록> 등처럼 국왕별로 편찬되기도 했다.

포쇄曝曬)하는 전통도 고려시대에 수립되었다(배현숙 2002, 32-41쪽).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어전 대화 속기를 포함해 중요한 공공문서는 실록의 이름으로 편찬·보관·관리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특히 태종과 세종시대를 거치며 ‘실록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박현모 2019, 32-35쪽). ‘실록의 체제’란 앞에서 살폈듯이 첫째, 왕 앞에 상시 대기하는 사관과 승정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집현전 학사까지도 어전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풍부한 기록). 둘째, 세종 때부터 실록은 전국 네 군데의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되었다. 만약 세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승정원일기>처럼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라면 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셋째, 역사기록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통을 수립해서 역사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사실에 의거해 직서한[擧事直書·거사직서] 다음 후세의 평가를 기다린다[傳信於後·전신어후]”는 기록정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실록의 체제와 철학’은 저절로 수립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왕이나 재상처럼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관은 “가까이하기 싫은[不近·불근]” 존재였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 태종처럼 역사기록을 중시하는 국왕조차도 “(왕이 쉬는 공간인) 편전(便殿)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사관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태종실록 1년 4월 29일). 따라서 때론 왕명을 거스르거나 유배형을 감내하면서까지 ‘곧게[直·직] 기록하는’ 자세를 견지한 사관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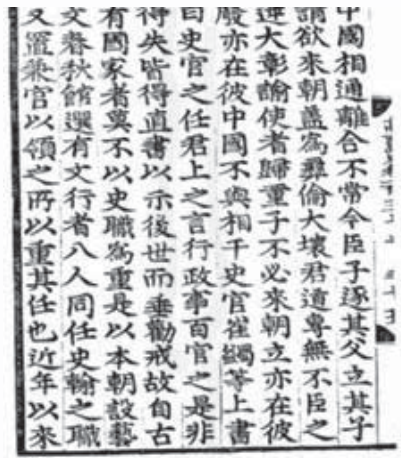
IV. '기록 정신'을 지킨 사람들

역사를 살펴보면 실록의 전통 혹은 곧게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려는 인물은 매우 많다. “군왕(君王)의 선악(善惡)과 신자(臣子)의 충사(忠邪)와 국가의 안위(安危)와 백성[人民]의 치란을 모두 들추어내어 권계(勸戒)를 삼기 위해[皆不得發露 以垂勸戒· 개불득발로 이수권계]”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그 한 예다(김부식, <삼국사기> 진 삼국사기 표(進三國史記表)). 고려말에 “사관으로 하여금 교대로 곁에서 모시게 하여 좌언과 우사를 모두 기록하여 만세에 내리십시오”라고 말한 조준(趙浚, 1346~1405) 역시 ‘기록 정신’을 지킨 사람이다.

1. 기록관리 역사 이정표 세운 사관 최견

속기와 기록 관련 ‘전통’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언급할 사람은 최견(崔鑄, 미상~1437)이다. 최견은 1385년(우왕11)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고, 1389년(공양왕1)에 예문춘추관 검열(檢閱)을 역임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사관의 직무와 사초(史草) 보관에 대해 건의하여 왕의 수락을 받아냈다. 그에 따르면 “사관의 임무란 임금의 언행(言行)과 정사(政事), 백관(百官)의 옳고 그름과 득실(得失)을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해[皆得直書· 개득직서] 후대에 보여서[以示後世· 이시후세] 권장과 경계를 삼으려는 것[而垂勸戒· 이수권계]”이다. 이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관의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고려 역시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문행(文行)이 있는 사람 8인을 선발하여 사관과 문한(文翰)의 직무를 맡기고 또한 검관을 두어 이를 관할하게 했다.

최견은 기록한 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사관들은 각각 사초(史草) 2부를 기록하되, 임기가 다 되어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면 1부는 사관(史館 : 예문춘추관)에 납부하고[一納于館·일납우관] (나머지) 1부는 집에 보관하게 하여[一藏于家·일장우가] 뒷날 참고에 대비하게 하자는 말이 그것이다. 그는 아울러 충실한 기록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처로 하여금 수행한 일을 상세히 실록을 담당하는 예문춘추관에 보고해서 기록 근거로 삼게 할 것도[以憑記錄·이빙기록] 건의했고 왕은 모든 제안을 수락했다(〈고려사〉 열전 권50, 공양왕 원년(1389) 3월).



〈그림9〉 '고려사' 열전 중 '최견의 제안' 부분

공양왕 원년(1389)의 이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 준다. 우선 그는 ①역사기록의 내용과, ② 기록한 것을 장차 읽을 주체, ③ 그리고 기록해서 얻으려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사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皆得直書·개득직서]'(① 내용).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읽을 주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장래 세대이다[以示後世·이시후세](②주체). 이를 통해서 사관은 당대 '자리에 올라 결정을 내리는 인물들로 하여금' 권장과 경계를 삼으려는 게 역사기록의 목표[而垂勸戒·이수권계](③목표)라는 게 최견의 말이었다. 실제로 최견의 이 건의는 조선 건국 후 〈경국대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오항녕 〈실록이란...〉 204쪽).

2. 사관 민인생의 용기

최견이 건의한 사관의 직무, 즉 임금의 언행과 정사, 백관의 옳고 그름과 득실(得失)을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은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 세종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왕들은 거의 대부분 사관 접근을 꺼리거나 금지하려 했다.

민인생(閔麟生)은 태종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려다 유배까지 간 사관이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사관 민인생은 국왕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끝내 따라다니며 기록했다. 1401년 당시 태종은 개경 수창궁(壽昌宮)에 있었는데, 무신(武臣) 10여 인을 거느리고 강 연안에서 매를 놓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했다. 그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민인생을 태종이 나무라자 공신 이숙번(李叔蕃)은 ‘사관 직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그를 꾸짖지 말라고 당부했다(태종실록 1년 3월 18일).

민인생에 대한 태종의 불만은 그다음 달에 표출되었다. 수창궁 편전인 보평전(報平殿)에서 태종이 정무를 처리하는데 민인생이 ‘정전에는 입시(入侍)해 기록해도 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왕명을 어기고 뜰[庭·정]로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고 묻는 왕에게 민인생은 전날 문하부(門下府)에서 사관 입시를 요청했고, 전하께서 윤택하셨기에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앞의 이숙번의 말에서도 보듯이 당시 신하들은 왕의 뜻과 달리 국왕이 있는 곳이면 항상 사관이 따라다니며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인생의 말을 들은 태종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재차 명령했다.

하지만 민인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經筵)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

게 갖추어 기록[備記·비기]하겠습니까?”라고 다시 여쭙었다. 그러자 태종은 웃으면서 “이곳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필(史筆)은 곧게 써야 하지만, 비록 보평전[殿·전]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인생이 대답했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신여불직 상유황천]”(태종실록 1년 4월 29일).

국왕과 사관의 기싸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의 최견이 제안한 사관의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왕의 편전은 물론이고 사냥 장소까지 따라가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자세가 그것이다. 특히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라는 말에는 사관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여기서 인상적인 말은 ‘위에 하늘이 있다’는 표현이다. <세종실록>을 검색해 보면 하늘[天]이란 말은 1,519개 기사가 검색된다. 자연환경으로서 하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주재자(主宰者)로서 하늘을 지칭할 때 쓰이고 있다. 가령 가뭄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가 계속되면 신하들은 ‘나랏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하늘이 꾸짖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왕은 “행실을 조심해서 재변을 그치게 하고 하늘의 뜻에 응답[答天意·답천의]”할 것을 약속하곤 했다(세종실록 18년 11월 14일). 국왕이 행실을 삼갈 경우 하늘이 눈이나 비를 내려 상서로움을 보여 주었다[天有祥雪·천유상설]고 말하고 있다(세종실록 즉위년 10월 27일).

다시 말해서 민인생이 ‘위에 하늘이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만약 제대로 쓰지 않으면 주재자인 하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점, 따라서 왕명보다 천명을 따르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정종 재위 1년에 공

신 조박(趙璞) 역시 “임금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이요, 사필입니다[人君所可畏者天也 史筆也· 인군소가외자 천야 사필야]”라고 말했다. 조박에 따르면 ‘여기서 하늘이란 푸르고 높은 자연환경[蒼蒼高高· 창창고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곧 “하늘의 이치[理]”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관이 임금의 잘잘못을 기록해[記人君之善惡· 기인군지선악] 만세에 남기고 있는데[以貽萬世· 이이만세]” 어찌 두렵지[畏· 외] 않겠느냐는 게 그의 말이었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⁷⁾

민인생이 앞에서 왕의 매 사냥을 따라다니며 기록한 지 5일이 지났을 때였다. 태종은 “며칠 전 사관이 사냥하는 곳에 따라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었다. 왕의 물음에 대해 승지들은 ‘사관의 직책은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의 거동은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독관 김과(金科)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기록의 목표를 얘기했다. ‘임금이 구중궁궐에 있다 보면 경계하는 뜻이 날로 풀리고, 게으른 마음이 날로 생기게 되는데, 오로지 사관만이 임금을 경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사필뿐[人君惟畏皇天與史筆而已· 인군유외황천역사필이이]”이라는 게 김과의 주장이었다. 정종 때 조박이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김과는 “하늘은 형상이 없으나, 착한 것에는 복을 주고, 음란한 것은 화(禍)를 주며, 사필(史筆)은 시행 중인 정사(時政· 시정)의 좋고 나쁜 것과 행동의 잘잘못을 곧게 쓰지 않음이 없는데, 만세에 전하여 효자와 자손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 두려운 일이 아님니까?”라고 대답했다(태종실록 1년 3월 23일). 최견이 말한 바 장차 역사 기록을 읽을 주체와 그 기록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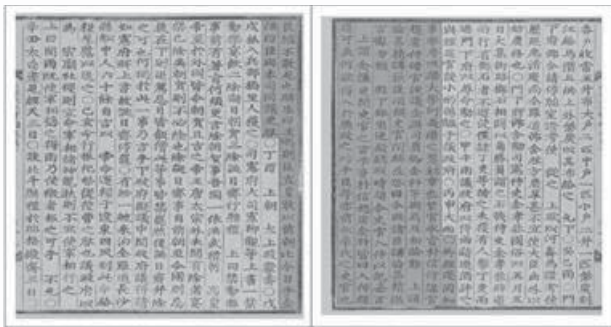
7)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관과 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이 태종시대에 마련되었다는 연구가 나왔다(이윤복 2021). 이는 성종시대에 들어 형성되었다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것인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태종시대의 사관과 연관의 언행이다. 위의 민인생의 태도와 함께 김과의 발언이 그 예다.

8) 김과는 태종이 수시로 불러 함께 책 내용을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신하’였다(태종실록 3년 3월 10일)

를 정확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민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 하늘이 있다’는 민인생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사관의 편전 출입을 금지했다. 그 발언이 있는 지 10여 일 후인 1401년 5월 8일 경연(經筵)이 열렸다. 경연 장소가 편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관도 입시(入侍)했다. 경연이 끝나고 주찬(酒饌)을 베푸는 자리에서 민인생이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講論)하심이 매우 정밀하고 또한 온화한 말씀이 친밀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한껏 왕을 칭찬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원컨대 전하께서 비록 편전(便殿)에 앉아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해 아름다운 말[嘉言·가언]을 기록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칭찬에 이어서 편전 입시를 요청하는 말이 다시 나오자 태종은 사관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려 우왕 때 사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왕을 뵈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연 입시는 관찮지만 편전 출입은 곤란하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민인생은 큰 소리로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인데[主明則臣直·주명즉신직], 어떻게 혼미했던 고려시대 사례를 가져와서 편전 출입을 금지하려 하느냐’고 말했다(태종실록 1년 5월 8일).

왕과 신하들 모두에게 대들고 큰소리를 친 민인생의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그림10> 민인생이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主明則臣直]”이라고 말하는 태종실록 부분

않았다. 오히려 사관 입시 기회가 더 줄어들었다. 두 달 뒤인 1401년 7월 8일 왕이 보평전에 들어갔는데, 민인생이 따라가서 문밖에서 엿보았다[戶外以窺·호외이규]. 그 모습을 본 태종이 화를 내며 ‘앞으로 사관은 날마다 예궐(詣闕)하지 말고 6아일(六衙日) : 1일·5일·11일·15일·21일·25일) 조회 때만 입시(入侍)하라’고 하명했다(태종실록 1년 7월 8일). 문 밖에서 휘장을 걷고 엿본(捲帳窺伺·권장규사] 민인생 역시 여러 차례 예를 어긴(屢失其禮·누실기례)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태종실록 1년 7월 11일).

그 후 신하들은 6아일에만 사관이 입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관의 매일 예궐’을 요청했다. 태종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사관의 매일 예궐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관의 편전 출입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태종실록 12년 7월 29일 : 12년 8월 26일). 승지들이 사관을 겸하고 있으니 기록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사관의 무례함이 매우 싫다[甚憎·심증]는 게 그 이유였다(태종실록 12년 10월 24일). 태종의 유명한 에피소드, 즉 사냥하다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낙마(落馬)했을 때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물령사관지지]”고 지시한 사실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태종실록 4년 2월 8일).

3. 이황

조선성리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사관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이황은 1534년(중종 29년) 문과에 급제하던 해 4월에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었다. 이 때문에 이황은 자신을 “이 한림(翰林)”이라고 불러 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한림, 즉 사관이 이황의 첫 관직일 뿐만

아니라 학자인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관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오향녕 2018b, 60쪽).

하지만 사관으로서 퇴계의 첫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1534년(중종 29년) 그의 처삼촌인 권전(權璡)이 “반역한 사람[逆人·역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간원의 비판이 제기되었다(중종실록 29년 4월 20일). 중종은 처가 쪽 흠결이 있는 이황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예문관 관원 전원을 파직시켰다(중종실록 29년 4월 29일). 이는 사관직은 조선 초부터 4조(祖)에 흠이 있으면 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후임 사관은 사관들이 의논하여 스스로 천거한다는 전통 때문이었다.

이황은 예문관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직되었으므로 정식 사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후 춘추관 겸임 사관으로 역할했다(오향녕 2018b, 61쪽). 겸임 사관으로서 기록해 집에 보관하던 가장사초를 아들 이준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이 그 근거이다(‘집에 있는 을사년(인종 1년, 1545년)과 병오년(명종 1년, 1546년) 사초를 가져오라’)(이황 1977, 129쪽 ; 오향녕 2018b, 61쪽에서 재인용).

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황은 제자인 김성일과 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예를 들면 김성일이 찾아와 “사관 직책은 임금의 거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당연히 용모와 말하는 기세 사이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입시(入侍)하는 신하들이 모두 부복하여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체적인 말과 행동의 큰 것은 기록하지만 말과 기색을 살피며 기록하는 원칙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황은 “사관이 부복해 있으면 곡절을 다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대가 말한 바가 참으로 옳다”라고 호응했다. 선조의 즉위 초년에는 사관뿐만 아니

라 시강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들고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신하들이 스스로 예전처럼 부복하였다는 게 이황의 대답이었다. ‘신하들 스스로가 좋은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김성일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據事直書·거사직서] 역사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실에 따라 정직하게 기술하여 시시비비가 각자 돌아갈 바가 있게 한다면 공과 죄가 서로 가리어지지 않고 선과 악이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여 후세의 공론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 상관(上官)으로 있는 자가 하위의 사관에게 평가(褒貶·포폄)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쭙었다.

이에 대해 이황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가운데에 평가를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춘추>를 쓴 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관 된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켰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악이 어떠하며 사실이 어떠한지를 몰라 도무지 의거할 만한 실상이 없는데도 “억지로 처음 들어온 사관을 시켜 한 번 붓끝으로 단정하는 말을 쓰게 하여 만세(萬世)에 전하게 하는” 세태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황과 김성일의 이 대화는 명종 때 이기가 일으켰던 ‘시정기삭제사건’ 등을 겪으면서 위축된 사관의 기운을 보여 준다. 하지만 사관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는 직필 원칙과 기록의 비밀유지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귀한 자료이기도 하다(오향녕 2018b, 62쪽).



〈그림11〉 사관(史官) 직무에 대한 퇴계와 김성일의 문답(* 출처 : <퇴계선생문집> 권340. 서(書))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속기 역사는 서양보다 그 출발점은 늦지만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 방법에 의해 기록·보존해 온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실제로 국회회의록에는 1966년 제5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⁹⁾ 부산 피난 시절, 장택상 부의장이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한 것을 나중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담당 속기사가 “속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의 장시간 필리버스터(filibuster : 무제한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도 속기사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사는 전통시대의 사관’이라고 말한다. 속기사들 스스로도 ‘역사를 기록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정아, 2019).

9) 김두한 의원은 당시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발언 말미에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봐라”며 국무위원석을 향해 사카린상자를 쏟아 붓고 오물을 쏟아 부었는데, 속기록을 보면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장내소란)(“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우리 역사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관 정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매우 많다. 본문에서는 고려시대 사관 최견을 비롯해, 태종 때의 민인생과 김과의 언행, 그리고 명종 때의 이황과 김성일 등의 대화를 통해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민인생의 경우는 있는 그대로 곧게 기록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잘 보여 준다(‘극한 직업’으로서 사관).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이 ‘사관 선배’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기사는 조선시대 사관에 비견되기도 하고(이경재 2012, 44쪽; 홍사덕 2013, 107쪽), 국회속기록에 대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조순형 2013, 96쪽). ‘현대판 사초(史草)인 국회속기록은 국보(國寶)급 가치가 있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김수한 15대 국회의장 _ KBS 2012, 82쪽).

국회 개원 60주년 특집 방송(2008. 7. 17.)에서 KBS는 이렇게 국회 회의록의 가치를 평가했다 :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문화가 존재하고,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속기록만 한 것이 없을 듯싶다. 국회속기록은 500여 년 전 사관들에 의해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쓴 왕조실록에 버금간다 할 만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실록은 어전에서 논의된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역사책이지만 국회속기록은 ‘현대판 사관’인 속기사들이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 없이 기록한 것으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사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회속기록은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 바로 그것이다.”(KBS 2012, 81쪽).

어떤 사람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편집장을 “백악관의 사관(史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이 ‘한 번만 고쳐 달라’고 통사정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고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을 맞이해 베푼 국빈 만찬장에서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했다. 당황한 대통령이 이튿날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 씨를 만나 그 실수를 정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통령의 청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설리번 씨는 ‘알겠다’고 말하곤 속기록에는 실수한 그대로 적었다(문명호 2012, 68-70쪽).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발언과 성명서와 대화 등을 모두 기록한 다음,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시대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 속기사들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긍지와 역사적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만으로 양질의 회의록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속기사가 ‘전통시대의 사관’으로서 또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자’로서 이러한 기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외부적인 인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내부적인 노력으로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 도입, 교육 기회 제공, 변화하는 기술 발전의 도입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처우와 사회적 인정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현재 대한민국 속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 연구에서 다룰 것을 희망한다. (끝)

- 참고 문헌 -

〈태종실록〉 〈세종실록〉 〈한서(漢書)〉 〈퇴계전서〉

〈한국 속기 50년사〉(대한속기협회)

그 외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조사보고서, 웹사이트 참고

※ 본 논문은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스케치

홍보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3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 기한을 정해 차기 정부를 구상하는 특별기구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인수위원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TF를 비롯하여 기획조정분과·외교안보분과·정무사법행정분과·경제1분과·경제2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을 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서도 직원 10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주 파견되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꺾위에 의한 선거였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새 정부를 바로 출범하였다. 그래서 10년 만에 꾸려지게 된 인수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열흘 만에 출범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른 출범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짧은 기간 동안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수위 분위기는 열의를 띠었고 이와 함께 속기팀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러나 속기 업무의 특성상 팀원 간의 자료 공유 및 인터넷 검색 등이 필수 요건이나 인수위 내의 엄격한 보안 적용으로 인해 신속한 회의록 작성과 제공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인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중 주요 회의(대통령 또는 인수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을 작성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7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TF가 구성되었다. 국회 의정기록과에서의 역대 인수위원회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브리핑과 분과위원회 회의 등까지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파견 인원 외에 상당수의 의정기록과 직원들이 인수위원회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 활동 기한이 4월 임시국회와 맞물리면서 지원이 불가하여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 그리고 시국상 중요도가 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만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속기팀은 주요 회의의 속기록을 생성하였으며 이는 대통

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안건은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실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대외비에 부쳐지는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 순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설치되는데다가 활동 기한도 짧다. 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직접 부딪혀 가며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인수위원회 파견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6일 해단식을 마치며 우리가 남긴 기록물으로써 5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한글의 중심, 광화문 한글 가온길을 가다.

홍 보 부

2013년 한글 창제 570주년을 맞아 다시 국경일로 지정된 한글날, 그 기념으로 서울시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 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 가온길을 조성했습니다. ‘가온’이란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의 우리말로 한글 가온길은 한글이 중심으로 자리 잡은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중심이라는 뜻에 걸맞게 가온길 내에는 세종대왕 동상, 한글학회, 주시경 집터, 주시경 마당, 한글글자마당 등 한글과 관련된 장소들이 모여 있고, 한글 관련 상징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 가온길 코스를 같이 둘러보며 우리 한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 한글 가온길 코스 소개



한글 가온길 코스

한글 가온길 도보 코스는 광화문 9번 출구 앞에서 시작하여 세종대왕 동상 → 세종문화회관 → 세종 예술의 정원 → 한글학회 → 한글 가온길 새김돌 → 한글이야기 10마당 벽화 → 주시경 마당 → 주시경 집터 → 한글 글자마당 → 세종이야기 순으로 진행되며, 코스 소요 시간은 약 2~3시간입니다.

■ 한글 가온길 코스 둘러보기

1. 세종대왕 동상



코스의 제일 처음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굉장히 사랑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한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글이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매년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 이름을 들으니 한글을 사랑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2. 한글학회

가운길을 걷다 보면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글학회는 1908년 우리 말글의 연구와 통일 및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학술단체로 한글 연구와 대중화 및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주시경 선생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금지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려 사전 편찬에 몰두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한글학회는 한글날과 한글맞춤법통일안도 만드는 등 지금까지 우리말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3. 주시경 마당

주시경 마당에는 한글을 발전시키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헌신을 한 주시경 선생과 힐버트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한국어와 한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언어학자였으며 우

리 말글 강의를 요청하는 곳은 어디든 가서 우리말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책가방을 쓰지 않고 보따리에 책을 넣고 다녔는데 뽁뽁한 수업 일정 때문에 늘 바쁘게 뛰어다녔고 그로 인해 보따리가 휘날리는 탓에 별명이 ‘주보따리’였다고 합니다.

호머 헐버트는 우리말과 문화를 연구하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미국인 교육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1886년 고종이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육자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한글 연구에 삶을 바쳤습니다.

호머 헐버트가 저술한 ‘사민필지’는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순 한글로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은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한글신문이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1886년 7월 5일 조선에 와서 일주일 뒤인 7월 13일부터 조선 말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배운 지 4일 만에 읽고 쓰기가 가능했고, 약 9개월 후에는 조선인들과 토론을 벌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시경 마당, 주시경



주시경 마당, 호머 헐버트

4. 한글숨바꼭질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가온길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간중간 그 지루함을 달래 주는 조형물들이 가온길 곳곳에 존재합니다. ‘한글숨바꼭질’이라고 불리는데요. 곳곳에 숨어 있는 조형물들을 찾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총 18개의 조형물들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 지역이 공사 중이라 18개의 모든 조형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조형물만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미소

글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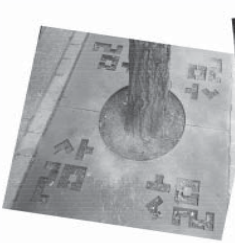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서울의 미소’는 웃는 입 모양과 웃음을 묘사하는 의성어 ‘하하하’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자음 ‘ㅎ’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조형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한글의 조형미를 부각한 작품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글꽃이 피었습니다’는 무심코 지나치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작품인데요. 승강기 위에 ‘꽃’이라는 글자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자음 ‘ㅇㄴㅎㅅㅇ’가 보이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서울의 미소’처럼 발견하기 쉬운 조형물도 있지만 ‘글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쉽게 지나치기 쉬운 조형물도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숨겨진 한글 조형물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며 걷는다면 2~3시간의 코스도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삼의 나무



한글 벽돌



바로 당신



나는 한글이다

5. 한글글자마당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는 11,172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 새터민 등을 포함해 국민 11,172명이 쓴 글자를 돌에 새겼습니다. 필체가 모두 다른 11,172개의 글자 속

에는 11,172개의 사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QR 코드를 통해 각각의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한글 가온길 코스는 혼자 여유롭게 둘러보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전문적인 관광해설사분과 동행하여 여러 설명을 들으며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처음 듣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알아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가온길을 방문하여 한글의 소중함을 느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 고 자 료-

VISITSEOUL.NET - 세종대로 한글 가온길 코스

1인치 '속' 기록 : 윤병임 속기사를 만나다.

홍보부

최근 몇 년 동안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속기사가 있습니다. 유퀴즈(유퀴즈 온 더 블럭),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이어 대학에서의 강의까지, 곳곳에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리고 속기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시는 윤병임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홍보부 속기사는 일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데 많은 곳 중에서 속기사무소를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윤병임 그때는 취업 자리도 그렇거니와 사무실을 연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격증 취득하고 연수원에 다니게 됐어요.

아마 유퀴즈 보면 속기자격증 나오고 그 대목 있지요? 젊은 시절에 단발머리 한 사진, 그게 연수원 옥상이에요. 구로에 있는 연수원 옥상인데 그때 철쭉 등 꽃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점심 때 한 번씩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지요.

(아~~ 꽃 같은 청춘이 주마등처럼……)



그때 연수원에 열심히 다닌 것 때문인지 이사님이 저에게 의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의회 아르바이트 2개월 하고 연수원에 복귀를 하니까 수원에 있는 속기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연수원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뭘 알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법원을 가 본 적도 없고,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누가 녹취록 진행과정을 알려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장, 준비서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홍보부 혼자 계셨어요?

윤병임 예, 아르바이트 전날 가격이 얼마라는 것만 알려 주시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듣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모르니까 무섭더라고요. 상담할 줄도 모르고, 뭘 쳐 달라고 오는데 제가 뭘 알아요. 줄 간격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사람만 나타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데, 그게 제 자존심인데……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보니까 남의 사무실 말아먹게 생기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사님, 저 연수원으로 복귀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사무실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연수원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참 웃긴 게 그 짧은 하루인가 이틀이 나의 인생을 좌우했어요. 짧게 봤지만 가격이 얼마다 그리고 준비서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소장, 준비서면도 혼자 연습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르바이트하러 간 사무소에서 스킷뿔 속 기사사무소를 하는 다른 분이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실을 하나 더 얻었는데 동업을 하자는 거예요.

홍보부 동업이요?

윤병임 예, 그런데 저는 법원 앞에 있는 데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려 줄 테니까 하래요. 연수원에서 하라고 해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이 됐으니 저보고 하지 말래요. 저도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랬지요. 결국은 그렇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남이 얻어 놓은 데 그냥 와서 앉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내가 되고 싶다고 가서 사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뭔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그냥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지요.

홍보부 올해로 22년째 속기사로 활동 중이신 걸로 아는데 첫 사건은 기억나시나요?

윤병임 사무소를 처음할 때는 직사각형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테이프에 녹음된 파일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녹취작업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듣고 쳐야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해도 듣고 세세히 기록한다는 건 어려운데 사투리는 장난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녹음은 몰래 숨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면 사람 소리는

안 들어오는 데다가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직직직 거리고 정말 안 좋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막 욱을 욱을……

제가 속기사 업무 중 가장 많이 듣고 기록하는 말은 욱이에요. 욱을 무지 들어요. 처음 의뢰받은 녹취에서도 욱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욱을 쳤어요. 그리고 경상도에 살아 본 적은 없지만 성질이 나면 사람은 말이 빨라지잖아요. 사투리에 말이 빨라지니까 이게 내 말인지, 네 말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무튼 욱이 나오기에 제가 열심히 욱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확성을 위해서 의뢰 당사자하고 확인을 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쓰는 용어들이라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확인 작업을 하면 이분들이 듣고서 자기들 말을 잘 알려 줘요. 도장이 나가는 거라서 항상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속기사는 본의 아니게 사건의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욱을 딱 쳐 놓고 같이 확인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욱이지만 어느 부분은 욱이 아닌 거예요. 앞부분에 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욱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욱을 쳐 놓고 의뢰인과 확인을 하는데 제 얼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게 첫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께 “제가 초안 작성하고 같이 확인 한번 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러면 “속기사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뭘 같이 해요. 그냥 들리는 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말은 늘 어려워요. 기록은 늘 어려워요. 우리가 뭐든지 쉬울 것 같아도 알수록

어렵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다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22년을 했다고 해서 속기가 쉽다, 녹취가 쉽다,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사무소를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홍보부 속기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윤병임 제가 자격증을 처음 땀을 때가 상공회의소 공인속기 2회 차였던 것 같아요. 99년도 10월에 합격을 하고, 2000년에 구로에 있는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지요.

그때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연수원 A반 반장을 했는데 제가 결혼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홍보부 결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윤병임 예, 33살에 처음 속기를 접했고 35살에 합격하고 36살에 연수원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정장을 입어요. 그래서인지 연수원을 가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데 제가 결혼한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제가 속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거잖아요. 프로는 변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을 하기 위해 나섰으면 밖에서는 프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사라든지 사적인 사정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연수원에 다니던 중에 가정법원인가에 첫 자리가 나왔어요. 한 자리가 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면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좀 고민이 됐어요. 아무래도 그룹 면접을 볼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결혼 여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결혼 사실을 듣고 기절을 하지 않을까, 저는 속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결혼 여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노처녀야.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전날에 연수원에서 옆 친구한테 “너 결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언니 먼저 하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결혼했는데 뭐 결혼을 또 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자판만 치고 있어요. 이미 말을 꺼냈으니까 확고하게 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결혼했어.” 그랬더니 22명의 친구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날 너무 놀라 가지고 매일 보는 연수원 테스트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 고백을 한 거지요.

다음 날 시험을 보러 갔더니 역시 5명씩 그룹 면접을 보고 결혼 여부를 묻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날에 제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홍보부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했는데 속기사사무소 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윤병임 어려웠지요. 20년도 2월에 첫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제한이 많아졌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누군가 확진됐다 그러면 재판은 안 열리는 거지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동부 구치소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열려요.

우리는 법원 앞에 있는 사무소니까 법원하고 같이 가요. 법원이 안 열리면 사람들이 녹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엄청 한산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이 없는 거지요.

홍보부 문 닫으실 때도 있으셨나요?

윤병임 아니요. 저는 평생 22년 동안 문을 닫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고객이 여기 사무소를 왔을 때는 저 하나를 만나고자 오는 거잖아요. 한 번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무소 오늘 문 열었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약속은 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신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무소를 오픈한 이상 저는 제가 아니에요. 고객의 속기사예요.

이제는 다시 활성화되리라고 보고요. 항상 터널이 깊으면 밝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저의 날이 올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홍보부 의뢰가 들어오는 내용도 다양하고 난이도도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업무를 하면서 꼭 지키는 원칙이나 각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윤병임 의뢰인들이 녹취를 맡길 때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사건의 핵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죽어도 안 빌려 갔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살살 유도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그래, 내가 그때 힘들어서 빌렸어’ 그러면 의뢰인이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는데 물어보고, 이게 사건의 키포인트잖아요. 그건 분명히 기록이 돼 줘야 돼요.

녹취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취파일 전부를 풀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음성파일은 1시간이 녹취가 되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들로만 되어 있는 녹취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분녹취를 하게 돼요. 그 부분녹취는 사건 당사자들이 시간대를 특정해서 맡기게 돼요. 제가 ‘이 부분 하세요, 저 부분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의 사건에 함부로 끼면 안 돼요. 절대로 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치는 거지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녹취록에 표기할 때는 몇 분에서 몇 분을 했다고 분명하게 표기를 해 줘요. 그래야 재판부로 들어갔을 때도 이게 전체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표기해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의뢰했을 때는 돈을 주고 맡겼으니까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칠 때는 이 사람이 알려 주는 정보에 의해서 말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개요가 뭐냐,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들리더라도 열심히 들어서 찾고자 하는 걸 찾아 줘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요즘은 휴대폰에다 녹음을 하니까 음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명확하지 않은 건 ‘……’이에요. 속기사는 지어내서 써 주면 안 돼요.

그게 속기사로서 다양한 의뢰인들에 대해 신경 쓰는 부분, 핵심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 그거예요.

홍보부 20년 넘게 속기사로 활동하신 만큼 녹음 기술의 발전, 음성인식 기술 등등 크고 작은 속기환경의 변화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속기사로서 활동하시면서 2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변화가 있을까요?

윤병임 저는 속기사가 첨단 전문직인지 몰랐는데 유퀴즈에서 ‘첨단 전문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첨단이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녹취 기계가 엄청나게 변천을 했어요. 처음에는 테이프였고, 가정집 전화기가 녹음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시계에 녹음될 때도 있었고, 샤프, 계산기에 녹음될 때도 있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캠코더도 있었지요.

캠코더는 우리가 보면서 바로 칠 수는 없으니까 다 테이프로 다시 뜨는 거예요. ‘수원 10대 소녀 살인사건’도 제가 테이프로 다 옮겨서 친 거예요. 치고 그 다음에 또 영상 보고, 별짓을 다 했지요.

녹취 기계가 굉장히 많이 변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손님들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음성 전달이 편해졌잖아요. 요즘은 메일이나 카톡으로 해서 초안을 보내 드리고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첨단 전문직이라는 것 저도 느끼지 못했는데 유퀴즈 때문에 생각을 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실 기기 변하는 걸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에게도 배우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적용을 해요. 그렇게 녹취 기계 변천은 참 많이 보지요. 그걸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부를 늘 해야 돼요.

홍보부 시대에 따라 녹취 기계가 발전했듯이 속기 기계도 변화했는데요. 속기 사님도 이번에 기계를 바꾸셨네요.

윤병임 유퀴즈 나가고 나서 바꿨어요. 23년 됐으니까 이게 자판이 안 먹혀 가지고…….

홍보부 이 키보드가 스테노픽처 3000이예요?

윤병임 아니요, 맨 처음 거예요. 제가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랑 본체 다 바꿨거든요. 오래돼서 바꿨는데 촬영 당시에 방송국 프



〈유퀴즈 출연 당시 사용했던 스테노픽처〉

로그래 연결 때문에 제 키보드를 방송국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속기 프로그램이 다운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촬영 가면서 제 본체와 모니터 등 다 싸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들이 다 제 거예요.

홍보부 꾸준히 '속기토끼'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다가 유퀴즈 출연 이후에 '우리 속기사'라는 명칭도 붙으셨더라고요. 유퀴즈나 꼬꼬무 등 방송 출연 후 또 다른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윤병임 제 이름이 많아졌어요. '우리 속기사', 그 다음에 요즘은 '꼬꼬무 속기사'로도 검색해 가지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방송 출연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있어요. 순기능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세요. 여기 변호사실에서도 녹취할 게 나오면 제 사무실로 보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유명하신 분이예요." 그 말씀을 항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손님들도 오셔서 되게 신뢰를 하시고 전국에서 "방송 봤어요." 하면서 녹취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기능이고요.

역기능을 보면 제가 뭐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책임감에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전화가 와요. 유퀴즈나 꼬꼬무 봤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유퀴즈 속기사, 꼬꼬무 속기사가 최고잖아요,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미 '베테랑', '의인' 이렇게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떤 게 잘못되면 댓글이나 기사 등을 통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렇게 전화하실 때

도 저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있는 것 같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홍보부 덕분에 ‘수원 10대 소녀 살인사건’ 자체뿐 아니라 속기사님의 공로도 알려지게 돼서 후배로서 매우 뜻깊은데요. 혹시 그 외에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윤병임 많지요. 옛날에는 간통 사건이 많았어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가정 깨지는 거였어요. 아기들 울음소리 날 때, 갓난아기를 시집에서 데려가 버려서 애 엄마가 그 시집 문을 두드리면서 아기 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깐 지금도 좀 춥네요. 그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갖 욕들이 다 등장하면서 폭력, 막 때리고 집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기가 돼서 날아다니고…… 그런데 확인은 당사자가 해야 되니까 의뢰인이 눈두덩이가 시퍼런 상태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속기사무소의 속기사는 정말 이성을 갖고서 일을 해 주되 공감도 정말 많이 해 주고 안아 줘야 돼요, 다독겨려 주고. “이런 것 속기사님 처음 보시지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뭐가 부끄러우세요.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라고 해 줍니다. 남자분들이 울 때도 있어요. 자기 설움에 겨운 거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자

기가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홍보부 속기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쉬운 직업인데요. 그런 걸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윤병임 제가 맨 처음에 속기사무소를 열었을 때는 잘 모르는 데다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들으면 저는 또 이쪽 말만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올면 같이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제가 너무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과 나를 구분해야지 하고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할 때 의뢰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새겨두고, 거기에 공감해 주고, 어찌 됐건 간에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너무 바쁘고 일을 밤늦게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얘기에 공감해 주고 일단 다 들어 줘요. 저는 의뢰인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힘들게 찾아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 줘요.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녹취라는 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돼요. 1시간짜리를 막 집중하잖아요. 어떤 때는 배가 막 등에 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기진맥진이지요. 그러면 저는 가까운 공원에 가서 혼자 걸어요.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요 또 뭔가 생각할 것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가요. 혼자 밥 일찍 먹고 나가 가지고 거기 솔방울 떨어진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밟아요. 밟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러다가 돌아와요.

홍보부 속기사로 일하시면서 후회나 회의감 같은 걸 느끼신 적은 없나요?

윤병임 제가 이 일을 되게 좋아한다는 건 공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힘드냐면 제 의뢰인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녹취록이 나가면 제 이름과 사무소명, 사무실 전화번호가 나가거든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본인과 법적으로 다투는 제 의뢰인이 미우니까 그 일을 해 준 속기사까지도 미운 거예요. 전화해서 제 의뢰인도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저까지도 넣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찢찢뻤을 거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만큼 경험이 있잖아요. 검증을 해 봐도 저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을 똑바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뢰인에게 “저를 넣어 놓고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고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혹시 사람 귀니까 잘못 들을 수는 있지만 없는 말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잘못 들을 수 있지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건 당사자하고 연락을 하시고요. 저희는 음성파일 제공한 것에 의해서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정 의심스러우시면 법원에 정식 절차 밟으세요. 음성파일 제출 받으셔서 검증 받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확고하게 해 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녹취를 정말 꼼꼼하게 듣고 잘 기록해 줘야 돼요.

저는 22년 세월의 녹취가 모두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다 있어요, 나중에 지난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주장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의뢰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홍보부 작년엔 연세대에서 강연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의 강연이었는데 궁금합니다.

윤병임 기록이에요. ‘아카이브(archive)’. 아카이브를 하는데 제목은 『1인치 ‘속’ 기록』.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잡듯이 뒤진다는 얘기예요. 1인치 속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의 속기록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지요. 날마다 이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속기사가 된 배경, 그다음에 속기를 하면서 잊지 못할 사건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이 중요하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AI에 대해서,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서 저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그게 얼마나 발달

이 될지 모르지만 녹취는 정말 상황이 많아요. 심지어 웃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탈한 웃음이 있을 수 있고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성추행 사건, 위계에 의해서 사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계속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데 여직원이 너무 난감해서 웃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 아가씨가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만두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밥줄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직원은 밥줄이 끊길까 봐 대답을 할 때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웃어요. 뭐냐,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을 괄호치고 ‘(난처한 웃음)’이라고 다 써 줬어요. 기록이 방대했는데 그 난처한 웃음이 정말 수없이 들렸거든요. 다 써 줬어요. 그냥 ‘(웃음소리)’로만 나가면 재판부가 뭘 줄 알겠어요. 재판부가 이걸 들어도 그건 난처한 웃음인 거예요.

또 어떤 녹취 상황들, 내가 여기에서 지금 녹취를 했지만 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시계가 있는 데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저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빗소리가 났어요. 빗소리 날 때 사고가 터졌으면 빗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빗소리를 AI가 뭘로 판단할 건데요? 시계 소리를 뭘로 판단할 거야? 판단 못 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 소리만 되게 크게 나오고 대화 소리가 노래에 묻혀서 안 들려요. 그런데 나는 무슨 노래 나올 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노래 써 줘야 돼요.

이렇게 비언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자기의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요.

홍보부 이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유퀴즈에서 말씀하신 아들과의 채무는 정리하셨나요?

윤병임 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홍보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윤병임 어떤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변호사 없는 변론은 가능한데 속기사 없는 녹취록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기사들이 그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사분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따라요. 나라에서 자격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권한도 줬어요. 속기사가 아무리 오타를 내서 내보냈어도 판사가 못 고쳐요. 그것은 오타 수정하고 속기사 도장을 찍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없는 변론은 가능하지만 속기사 없는 녹취록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장 찍는 것 그냥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 약속, 신뢰, 책임감이예요.

일을 의뢰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독여 주는 게 속기사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속기사님, 그래서인지 저 약속, 신뢰,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여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윤병임 님의 앞날에 밝은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 내 인생의 한 수

한수(한수녹취속기사무소)



속기사들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국회, 의회, 법원, 검찰 등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막방송, 프리랜서, 창업 등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중에서도 속기사무소 운영은 녹취록 작성에서부터 영업,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속기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수 속기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현재 한수속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거 자료로 쓰이는 녹취록을 작성하는 업무와 기업체, 관공서 등의 기관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작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도 속기사인 걸로 아는데 두 분의 만남도 속기로 인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반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여러 직렬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TV에서 속기공무원에 대해 방송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을 송출하는 일이나 국회, 의회 등의 정부기관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공부할 때 만나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 여담이지만 부부속기사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직업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작업을 했던 이혼소송 건들이 생각이 나요. 이혼소송 건 녹취록 의뢰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여 잔소리와 부부싸움이 잦아져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을 부부싸움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같은 부부속기사는 업무의 어떤 부분이 힘든지, 특히 언제 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서 서로 배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업무가 밀려 있을 때는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속기사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정이 있다고 업무를 뒷전으로 미룰 수가 없잖아요, 속기사니까요. 가끔 밤새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바쁠 때는 정말 집안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 속기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속기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만나게 되는 분들은 대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올해 의뢰 받았던 건 중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굉장히 침착하고 공손했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참다가 이제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는 폭력과 도박으로 그나마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도 사치품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녹취록 증거제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해 줄 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녹취록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속기사로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속기사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타이핑이나 정확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연습과 학습으로 어느 정도 숙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투리가 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이핑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정확하게 속기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완성도 높은 속기록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의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일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속기사를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목표는 속기 업계에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속기 업계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최선을 다해 속기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요.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는 속기사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잘 정착하여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속기사는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력이 좋고 전문가가 된 속기사는 없습니다. 이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기보다는 더 큰 꿈을 꾸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간다면 꿈에 그리던 좋은 속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면 불안했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속기사님들께서 책임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녹취록에 속기사님의 이름과 도장이 찍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함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이 힘들 때 이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신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속기사님의 일과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와 의회 속기사의 만남

홍보부



여러분은 속기사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의장 한가운데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묵묵히 걸어오신 두 속기사님이 계신데요. 강서구의회 이옥례 속기사님과 국회 임수민 속기사님을 겹벚꽃이 활짝 핀 날 만나 뵈었습니다.

홍보부 속기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옥례 수필속기로 시작해서 올해로 만 30년 넘었고요. 강서구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수민 저는 2018년도에 강서구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2019년도에 국회에 임용되어서 만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홍보부 속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옥례 제가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사극을 좋아해요. 역사

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보면 왕 앞에 앉아서 항상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우리의 대대대선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속기사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지방자치제에 부응한다고 해 가지고 속기사를 발굴하는 게 엄청 활발했어요. 그때 당시에 학원들이 아주 성행을 했지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차에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하게 됐어요.

임수민 저는 사실 속기를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수필속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어머니께서 한번 해 보지 않겠냐고 추천을 해 주셔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부 임수민 속기사님의 의회와 국회를 모두 경험하셨는데 두 기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임수민 우선 법률을 제정한다는 부분이나 규칙을 제정한다는 부분에서 일맥상 통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의원 수 자체가 국회는 300인이고 지방의회는 20명 남짓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라든지 아니면 회의의 양에 차이가 있어서 속기사의 업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 분장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 검토, 작성까지 의회에서는 한 분이 모든 걸 다 통괄해서 하실 수 있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행정직분들이나 행정부처 공무원분들과 연락을 하려면 따로 해야 되는데 의회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유기적인 관계 부분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부 평소 서로의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이옥레 저희가 일할 때 모토가 없으니까 대부분 국회 것이나 시의회 것을 많이 참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의록도 뒤져 보고 하다 보면, 저희는 모든 상황표시나 상황묘사 같은 것을 회의록에 다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회 것을 보니까 의사봉 3타를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왜 안 쓸까? 다른 상황표시는 다 하면서 의사봉 3타에 대한 상황표시를 안 한다는 것에 저는 예전부터 가장 큰 의구심이 들었어요.

임수민 현재 국회에서는 영상회의록이 보편화되기도 했고 회의록을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상황표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사봉 3타의 경우도 회의 개의나 산회 멘트 후 항상 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의·산회 선포 자체를 의사봉 3타와 함께 인식하고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옥레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때는 의사봉 가지고 도망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정말 명백한 상황묘사인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항상 궁금했거든요.

홍보부 너무나 명백해서 안 하는 걸까요? 그건 저희도 참 궁금하네요.

이옥레 그리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면 회기 의사일정안을 의장님이 의장 제의로 운영위원회에 넘기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의사일정을 따로 협의를 안 하나요? 워낙 방대해서 그런가요?

임수민 국회도 국회법에 정기회, 임시회와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한 조항 등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거의 상시국회기도 하고 의사일정의 작성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부 그러면 의회는 언제 회의를 열겠다는 게 예상이 되겠네요?

이옥례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갑자기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규탄대회를 한다든지 갑자기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루짜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게 되지요.

홍보부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과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임수민 국회는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등 국회법에 있는 개회 요건이 성립되면 갑자기 회의일정이 생기거나 변경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같은 걸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의회는 1년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 스케줄을 원활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의회가 국회에 비해 좋은 점이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국회가 좋은 점은 구내식당, 도서관, 국회어린이집 등등 직원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 규모는 사실 여타 기관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옥례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직장 근처에다가 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

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잘 키웠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개별 집무실을 우리 강서가 아마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지방이나 다른 곳을 다 비교시찰을 하고 오시면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자 방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는 데 힘을 쏟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개별 집무실을 마련했어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승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승진이 근속으로밖에 안 돼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지금 힘쓰고 있는 분들은 보니까 의사팀장으로도 가고 또 지방에는 기록팀들이 열몇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중량에서 최초로 기록팀을 만들었어요. 속기사들만 있는 기록팀을 만들어서 기록팀장도 되고 했는데, 그러려면 속기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관계 형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뒷짐 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속기사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그런 일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부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옥례 좋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23년 만에 어느 분이 연락을 해 온 거예요. 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아직도 근무하고 있을까 해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대요. 근데 제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친구 한 명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나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들기도 하네요.

임수민 저는 의회에서 국회로 옮기고 난 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의회는 1년 단위의 의사일정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국회에 입사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마주하게 되어 ‘역시 국회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홍보부 음성인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속해 있는 기관에서 음성인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옥례 저는 다들 기계속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아직도 수필을 하고 있어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음성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음성인식 하면 속기사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단면만 보고 말하는 거지요. 말하는 것을 음성인식으로 다 해 놨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회의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최근에 전자투표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는 있는데 음성인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임수민 회의록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신속성 부분은 음성인식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속기사로서는 정확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검토라든지 편집에 중점을 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성인식의 도입으로 속기사의 업무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달리하여 회의록을 완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현재 인공지능과 모바일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례 국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또 내려오겠네요. 국회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지방으로도……

홍보부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아직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옥례 아마 시행착오는 많이 겪지 않을까 싶어요. 음성인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전원이 나가 버린다든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해 주셔야 잘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홍보부 의회나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이옥례 속기 전성시대를 넘어서서 지금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이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한다 해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보람이 큰 일인 것 같고 내가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워낙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딱히 뭘 할 건 없지만 속기가 듣는 걸 바로바로 치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하거나 이런 것은 받아 적을 때 순간 멈칫하게 되지요. 멈칫하게 되면 다 놓쳐 버리잖아요. 국회가 됐든 지방의회가 됐든 속기를 준비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의회나 국회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는 건 어떨까, 도시 쪽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의록을 한번 좀 읽어 봤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임수민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일해 보고 국회도 일해 보니까 기회의 폭을 넓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를 목표로 중점을 찍어서 하기보다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서든 일을 해 보시면서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업무의 방향성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중간중간 마주하는 위기들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양한 실무 속기 경험을 해 보시면 그 과정에서 분명 좋은 기회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보부 혹시 마지막으로 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옥례 요즘에 계속 의회에서, 지방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 감소분들이 나오겠지요. 저는 속기사를 위해서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 뽑는 데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뽑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받아서 후배들이라도 당당히 섰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 같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정식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차라리 국회가 됐든 시가 됐든 이런 데서 시험 개최를 하고 속기사를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구로 보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속기사들이 또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 주시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옥례, 임수민 속 기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시작

강 지 혜

〈속기사가 되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재판 방청을 계기로 속기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대 초반에 유망자격증 검색을 통해 속기자격증을 접한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속기사가 되기로〉

속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했을 때 ‘속기공무원의 꽃 국회속기사’라는 문구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속기사가 대단한 거구나. 언젠가 나도 국회속기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시작한 속기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저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속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는 시간적 여유 때문인지 현재에 만족하며 국회속기사를 잇은 채로 지내다가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어 속기과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국회속기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국회속기사에 도전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 시기의 제 상황과도 잘 맞아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데 국회속기사로서의 때가 있다면 지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던 일 대부분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험 과정〉

저는 필기를 두 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요령도 많이 피웠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성하면서 재시험 때는 전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에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처음보다 덜 힘들긴 했습니다.

실기준비는 필기시험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논설·연설 낭독파일 5개씩 연습했습니다. 초반에는 약어 위주로 연습했고 약어 추가 기능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속기협회에서 진행하는 모의면접을 토대로 사설학원에서 첨삭도 받고 스테디도 했습니다.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합격 후〉

지치고 힘들었지만 꾸준한 하루하루가 모여 합격이라는 결실을 내고 나니 앞으로 어떤 일이든 과정도 즐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아니면 쓸모없다고 느꼈던 수험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를 두며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습니다.

또 합격은 저 혼자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딸 때문에 속앓이했을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합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믿어 주셨던 어머니에게 합

격 소식을 전할 때의 벅찬 마음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국회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배움을 감사히 여기고 배운 것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후배, 동기들과도 어우러져 화합할 줄 아는 유연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했다, 나 자신아

김다정

〈열아홉의 시작〉



속기사라는 직업은 열아홉 살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 손이 빠르고 꼼꼼한 편이어서 ‘자격증, 그거 뭐 쉽게 따겠지’라는 다소 안일한 마음으로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접해 보는 키보드는 자리 외우는 것부터 힘들었고 듣고 치기 연습을 할 때는 제 손가락이 꼬이는 걸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학원이나 강의 없이 혼자 해내고 싶다는 이상한 객기가 있어서 독학으로 준비했지만 가끔씩 게을러지는 제 마음을 다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결국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로 가는 아주 긴 여정〉

국회는 2020년 3월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국어·영어·한국사 인강을 각 과목당 2~3개씩 수강하고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다만 속기직 선택 과목인 헌법·행정학은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는 과목이라 막상 시작하기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그해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정학은 암기해야 할 게 많고 헌법은 용어부터 생소하다 보니 이해를 못 하는 제 자신

이 스스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보다 두 과목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의 국회법 파트는 혹시 면접까지 간다면 질문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최종 합격한다면 국회 직원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열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준 효자 과목은 헌법과 행정학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합격 소식에 잠깐 동안 기쁨을 누리고 바로 실기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부터 실기시험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1.2배속까지 속도를 늘려 연습했습니다.

실기시험 당일은 오전부터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하필 아침부터 비가 오는 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전의 복선 같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세팅할 때는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심한 긴장감이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손에 땀을 만큼 긴장한 것 같습니다. 가뜰이나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속기 연습은 거의 하지 못한 상태라 자신감이 없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폰에 저장해 온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손을 풀었습니다.

매우 다행히도 저는 커트라인으로 실기에 합격했고 생각지도 못한 면접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저의 인생을 쭉 훑어봤는데 단조롭게 혹은 게으르게 살아온 게 정말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후회해 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 이제는 정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이 면접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엄청 울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험생으로 살면서 사소한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 볼 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최종 면접을 보러 국회에 갔을 때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게 정말 멋있고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부러워하던 저도 이제 매일 공무원증을 찍고 국회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새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예술의 전당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콘서트홀 정중앙에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많은 악기들이 배치돼 있는데 저는 그중 가장 뒤에 있는 타악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공연에서는 지휘자나 바이올리니스트가 보통 눈에 잘 띄지만 팀파니나 심벌즈가 없다면 곡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향악의 묵직한 울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의장의 속기사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후손에게 전해져 과거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기사의 역할을 잊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취향도, MBTI도 계속 바뀌겠지만 국회속기사가 되고자 마음먹고 노력하던 그 순간의 초심은 끝까지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배 그리고 선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이슬

〈속기를 접하게 된 계기〉



고등학교 축제 때 열린 타자대회에서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컴타자연습 프로그램으로 애국가 1절을 입력하는 간단한 대회였지만 800타로 1등을 하고 작게나마 상품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타자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관련 직업을 찾다가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키보드 가격을 보고 쉽게 포기했었

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들처럼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졸업 때까지 그냥 의무감으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그다지 적성에 맞지 않았고 이러한 생각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의감이 들어 다른 일을 찾다가 우연히 다시 속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포기했었던 학창시절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 보자 결심하고 퇴사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꽤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 두고 그만둬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웬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속기사가 되기로 결심하다〉

속기 공부를 시작하고 약 1년 4개월 뒤 한글속기 1급을 취득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속기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평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어서 필기시험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속기사협회에서 한 달간 진행한 실무 연수를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속기사 시장은 정규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속기공무원, 그중에서도 이왕 공부할 거라면 속기사로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국회에 도전해 보자 마음을 먹고 국회속기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험과정〉

수험기간은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달려야 지치지 않고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 무리하면서 공부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정도를 공부했고 토요일은 평일의 절반 정도, 일요일은 아예 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라도 유난히 힘든 날은 통으로 쉬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공부했음에도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2주간 공부를 아예 못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유튜브로 국회속기사 관련 영상을 모두 찾아봤었습니다. 보면서 ‘나도 저곳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슬럼프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합격수기들을 수시로 봤는데 선배님들께서 겪었던 힘든 과정들을 보며 이렇게 힘든 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것을 버텨 내야 바라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또 힘을 얻었습니다.

1년간 공부하고 봤던 시험 당일 저녁에 가채점을 하고 나서 올해 합격은 안 되

졌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 5년간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들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자 마음먹고 공부 계획을 다시 짜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문제가 어려웠는지 예년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진 덕분에 저는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공부하느라 떨어졌던 속기 감을 되찾기 위해 일주일 중 6일 동안 꾸준히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온라인 학원을 등록해서 듣고 치기 연습을 했고 또 국회회의록을 보면서 보고 치기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실기시험장에 갔을 때는 스피커와 가장 먼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소리가 좀 작게 느껴졌고 놓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합격자 발표 날까지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기시험도 무사히 합격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편이어서 면접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지면 마음 다잡고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수험기간 중 가장 짧았던 면접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제게는 가장 길게 느껴졌고 가장 힘들었습니다.

면접 전날에 잠을 잔 듯 만 듯 자고 일어나서 집을 나섰는데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제 기분도 좋아졌고 그래서인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떨지 않고 무사히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후련했습니다. 붙고 떨어지고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편한 마음으로 푹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속기직 면접이 가장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면접 바로 다음 날이 최종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발견하고는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로 알려 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제가 합격했다는 사실이 실감 났습니다. 그리고 임용식 전날까지 늦잠도 실컷 자

고 평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마무리하며〉

출퇴근을 하다 보면 휴대폰 카메라로 국회를 찍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진으로 남길 만한 상징적인 곳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저렇게 상징적인 국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부심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곳인 만큼 책임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 정확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교육이 끝나고 실무에 투입될 텐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입으로서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께 여쭙 가면서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55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22년 1월 29일 금요일 18시 30분에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정숙 총무재정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제29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김명진 회원, 은상 한태영 회원, 동상 김소라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회장이 해주셨다.

다음으로 이주성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손숙자 이사장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단에 등단해 참석한 귀빈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회의는 손숙자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회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손숙자 이사장으로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이강욱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 세 번째 부의안건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영등포구청장에 보고·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관련 법인 민법 개정에 맞추어 삭제 또는 주무관청으로 변경하려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네 번째 부의안건 기타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4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5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속기계를 마무리하다 보면 어느덧 새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운 얼굴들과 다시 반가웁게 이야기꽃도 피우고 눈부신 봄날의 정취에 흠뻑 빠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속기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유

코로나 덕분에(?) 많이 고생하셨고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한다고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들과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 찬

어느덧 벌써 58호 속기계가 나오게 되었네요.(박수) 올해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찬 속기계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서

바쁜 와중에 속기계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

작년에 이어 두번째 속기계 참여네요. 참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속기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혁

홍보부의 일원으로 늦게 합류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바쁘신 중에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라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 내 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홈 페이지 www.k-steno.com
이 메 일 seamnuri@naver.com
내 용 표지 그림·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 회 발 전 기 금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 회 발 전 기 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8호 **속기계**

발행 2022년 6월

발행인 이주성

편집인 김점동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홈페이지 www.k-steno.com

비매품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